



정답과 해설

중학교

국어 2-2

박영민 외

갈래 익히기

수필

6쪽

1 (1) ○ (2) × 2 (1) 글쓴이 (2) 개성 (3) 경수필 3 ③

- (1) 수필은 형식이 자유로운 글로,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다.
(2) 수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느낀 것을 자유롭게 쓴 글로, 전문가나 전문 작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쓸 수 있다.
- (1) 수필 속에 등장하는 '나'는 글쓴이와 동일 인물이며, 수필 속 이야기는 사실에 바탕을 두어 사실적인 성격이 강하다.
(2) 수필에는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 글을 통해 글쓴이의 성향, 사상, 사고방식 등을 알 수가 있다.
(3) 경수필은 생활 속 경험이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바탕으로 쓴 글로, 문장 흐름이 가볍고 친근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제시된 작품은 중수필에 해당한다. 중수필은 주로 사회적, 철학적, 시사적 주제를 다루며 경수필에 비해 형식과 내용이 무겁고 논리적인 전개를 보인다.

오답 풀이 ①, ② 자기 고백적 성격이 강하며 문장 흐름이 가볍고 친근한 것은 경수필이다.
④ 수필은 형식상의 구성 단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로운 편이다.
⑤ 수필은 '나'는 글쓴이와 일치한다.

시조

7쪽

1 (1) × (2) ○ (3) × 2 (1) 사설시조 (2) 사대부 3 ⑤

- (1) 시조는 고려 말부터 발달해 조선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창작되고 있는 한국 고유의 시가 갈래이다.
(2)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음보의 율격으로 되어 있는 정형시이다.
(3) 시조에서 종장의 첫 구는 반드시 세 글자로 써야 한다.
- (1) 사설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구조를 엄격히 지킨 평시조의 형식에서 벗어나 내용이 제한 없이 길어진 것이다.
(2) 조선 전기에는 사대부 계층에 의해 지어진 작품이 많았으며, 주로 유교적인 이념이나 규범, 자연 속에서의 유희자적인 삶을 노래하였다.

참고 자료

시조의 특성

시조는 고려 말기에 나타나 조선 시대에 전성기를 이룬 문학이다. 시조의 기본적인 형태는 평시조로, 평시조는 3장(초장, 중장, 종장), 6구, 45자 내외이며 4음보를 기본형으로 한다. 조선 후기로 가면 평시조의 정형적 형식에서 벗어난 사설시조가 나타난다. 시조는 주로 사대부의 정서와 이념을 풀어 낸 것으로, 자연 친화적 태도를 노래하거나 충효와 같은 유교적 가치관을 노래하였다. 사설시조는 작자를 알 수 없는 작품이 많으며, 주로 세태를 풍자하거나 삶의 애환을 해학적으로 노래하였다.

- 정몽주의 「단심가」는 고려 말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새 나라를 세우는 것에 반대하고 고려를 향한 유교적 충절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노래한 시조이다. 이 시기에는 길재 「오백 년 도움지를~」, 원천석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등 고려에 대한 유교적 충절을 다룬 작품이 다수 창작되었다.

소설

8~9쪽

1 (1) ○ (2) × (3) × 2 (1) 주제 (2) 간접적 3 ③
4 (1) ○ (2) × 5 외적 갈등-인물과 인물의 갈등 6 ⑤

- (1) 소설은 삶의 진정한 의미나 진실을 담고 있어 독자에게 감동을 주기도 한다.
(2) 소설은 줄거리 형태의 산문 문학이며, 운문 문학인 시와 달리 운율이 없다.
(3) 소설 속 이야기는 작가가 상상을 통해 꾸며 쓴 허구적인 이야기이지만, 현실의 모습을 반영하여 현실에서 일어날 만한 일을 다룬다.
- (1) 소설에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파악하면 작품의 주제와 창작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은 서술자가 인물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직접 제시와, 대사와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간접 제시로 나눌 수 있다.
- 일제 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이 징용에 끌려가 강제 노동으로 고통을 겪었고, 태평양 전쟁이 터지고 징용에 끌려간 사람들은 폭격으로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한국 전쟁 당시에는 참전 중에 죽거나, 부상을 당해 상이군인이 되어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 소설 「수난시대」에서는 만도와 진수를 통해 이러한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4 (1) 소설의 구성 단계는 갈등의 해결 과정에 따라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로 이루어진다.
 (2) 소설에서 갈등이 심화되며 긴장과 위기가 고조되는 단계는 '위기' 부분이다. 이후 '절정' 부분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결말' 부분에서는 갈등이 해소되며 사건이 마무리된다.
- 5 제시된 상황에서 두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과 인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소설 「동백꽃」의 줄거리

발단	점순이 이유 없이 '나'의 닭을 꼬여 내어 닭싸움을 시킴.
전개	나를 전, 점순이 준 감자를 '나'가 거절한 이후로 점순이 '나'의 닭을 괴롭히기 시작함.
위기	'나'는 닭에게 고추장까지 먹였으나, '나'의 닭은 점순네 닭과의 싸움에서 또 짐.
절정	또다시 '나'의 닭을 괴롭히는 점순에게 화가 난 '나'는 점순네 닭을 때려죽이게 됨.
결말	'나'가 닭을 죽인 것을 점순이 비밀로 해 주는 대가로 '나'와 점순은 화해함.

- 6 제시된 장면에서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심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명하는 글

10쪽

1 (1) × (2) × (3) ○ 2 처음 3 ①

- 1 (1) 설명하는 글은 독자를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글이다.
 (2) 설명하는 글은 독자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3) 글쓴이는 독자가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2 설명하는 글의 짜임은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 부분에는 글을 쓴 동기와 목적을 제시하고,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며,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소개하는 내용이 제시된다. 제시된 글에서는 동물원에 대한 독자의 경험을 묻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글의 '처음'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3 제시된 글에서는 '경제적 유인'이라는 개념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명 방법은 정의이다.

참고 자료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

- 설명하는 글을 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설명하려는 대상에 맞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설명 방법을 사용한다.
- 설명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는 데 적합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설명 방법이 독자의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이어야 한다.
- 객관적이고 명료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복합양식의 글

11쪽

1 (1) × (2) ○ (3) ○ 2 (1) 표현 양식 (2) 맥락 (3) 출처 3 ⑤

- 1 (1) 문자만으로 되어 있는 전통적인 형식의 종이 책은 글이라는 하나의 표현 양식만 사용되었으므로 단일양식에 해당한다.
 (2) 다양한 표현 양식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글은 내용을 더욱 생생하고 풍부하게 전달하여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3) 글이나 자료를 복합양식으로 구성하면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고,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2 (1) 복합양식은 문자, 그림, 사진, 소리, 동영상 등의 표현 양식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글의 목적, 글의 주제, 독자, 글을 실을 매체에 해당하는 내용을 파악하면 복합양식의 글이 작성된 맥락을 알 수 있다.
 (3) 글이나 자료가 제작된 시기, 출처, 자료를 제작한 기관 등을 점검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 3 복합양식의 글이나 자료를 평가할 때는 글이나 자료의 표현 양식이 글쓴이나 제작자의 의도나 목적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표현 양식이 글쓴이나 제작자의 의도나 목적과 무관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②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③, ④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참고 자료

복합양식성의 개념과 특성

개념	문자, 소리, 음악, 그림, 사진, 동영상 등 여러 표현 양식이 복합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것
특성	• 내용을 풍부하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여 수용자가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함. • 영상 매체 자료는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 자막 등의 시각적 요소와 배경 음악, 효과음, 대사 등의 청각적 요소가 어우러져 복합양식성을 지님.

매체 자료

12쪽

- 1 (1) × (2) ○ 2 (1) 제작자 (2) 사회상 (3) 고정 관념
3 ③

- 1 (1) 매체 자료는 문자, 그림, 사진, 소리, 동영상, 그래프 등의 여러 가지 표현 양식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복합양식에 해당한다.
(2) 매체 자료에는 당대 사회의 모습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 관념이 반영될 수 있다.
- 2 (1) 매체 자료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현실을 재현한다. 매체 자료에 드러난 모습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특정 요소가 선택되거나 배제되어 재현된 현실이다.
(2) 1970년대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홍보물에 반영된 남아 선호 사상과 크게 높아진 인구 증가율은 당대 사회의 모습인 사회상에 해당한다.
(3) 홍보물에 여학생은 화장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학생은 뉴스를 많이 보고 토론도 잘하는 것으로 그려진 것은 성별에 대한 잘못된 고정 관념이 반영된 예이다.

참고 자료

매체에 따른 재현 방식

영화	• 대사, 자막, 영상, 효과음, 배경 음악 등으로 표현됨. • 두 시간 전후의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완결성을 갖춘 이야기를 담기 위해 압축과 생략이 이루어짐.
웹툰	• 문자, 그림, 색상, 대사 등으로 표현됨. • 인물, 배경, 말풍선, 대사, 의성어와 의태어 등의 요소 등을 통해 감정과 서사의 고조, 시간의 연속성 등을 표현함.
게임	• 그래픽, 영상, 자막, 대사, 효과음, 배경 음악 등으로 표현됨. • 개발자가 설계한 세계관의 규칙 안에서 여러 임무를 선택하여 체험할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 스스로 만들어 가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가 됨.

- 3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을 추론해 보고, 매체 자료에서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한 부분이나 배제한 부분을 파악해 보아야 한다. 또 자료에 반영된 사회상이나 고정 관념 등에 유의해야 한다. 매체 자료에 제시된 정보가 반드시 객관적 사실인 것은 아니므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건의문, 대화

13쪽

- 1 심각성 2 (1) × (2) ○ (3) ○ 3 ④

- 1 건의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의 대상이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학교 급식에 채식 식단을 도입할 것을 건의할 때, 육식 위주의 식단이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언급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어 건의 내용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 2 (1) 대화는 정보 전달, 설득, 정서 표현, 상호 작용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2)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며 상호 작용하는 언어 활동이다.
(3) 대화는 사적이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대체로 형식적인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
- 3 상대의 잘못을 강한 어조로 지적하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갈등을 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비난과 공격 등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 나의 즐거운 국어생활

01 똑똑하게 글 읽기

소단원 한눈에 보기

18~19쪽

1 (1) ○ (2) ○ (3) ×

2 (1) ㉠, ㉡, ㉢ (2) ㉣, ㉤, ㉥ (3) ㉦, ㉧, ㉨

3 점검, 조정

4 (1) ○ (2) × (3) ○

5 (1) 다수 (2) 중심 (3) 고르게

활동 응용 문제

24~25쪽

1 ㉢ 2 ㉣

- 1 읽을 글을 선정할 때는 자신의 독서 상황에 맞는지, 자신의 수준에 맞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독서 상황을 고려할 때는 독서의 목적과 시기 및 시간, 독서의 방식이나 방법 등을 점검해 보아야 하고, 독서 수준을 고려할 때는 글 내용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의 정도, 배경지식의 정도, 글에 쓰인 단어와 문장의 수준 등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 2 준서는 월드컵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 글을 읽는다는 독서 목적을 확인하고, 월드컵에 대한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려 보았다. 또한 차례에 제시된 소재목을 보며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찾고, 월드컵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예측해 보았다. 그러나 준서가 글의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 본 것은 아니며, 이는 글을 읽는 중에 점검하고 조정할 내용이다.

제재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

스스로 확인하기

26~32쪽

(1) ○ (2) × (3) 우루과이 (4) × (5) ○

내용 확인 문제

26~32쪽

- 1 ㉠ 2 ㉡ 3 친선, 화합 4 ㉤ 5 ㉢ 6 ㉣
7 ㉡ 8 ㉣ 9 '쥘 리메'를 떠올리며 월드컵을 즐기는 것
10 ㉡

- 1 '처음' 부분을 통해 이 글이 월드컵의 유래와 역사 및 최초의 진정한 월드컵을 설명한 중수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이 글의 '가운데 1' 부분에서 당시 축구가 프랑스 상류 사회와 중산층 사이에서 환영받는 스포츠가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아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처음' 부분에서 월드컵에 대해서 설명할 것임을 안내하고 있다.
② 처음으로 월드컵을 개최한 사람은 쥘 리메라고 하였다.
③ 쥘 리메가 프랑스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점과 파리로 이주해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밝히고 있다.
④ 쥘 리메는 1897년에 친구들과 함께 레드 스타라는 스포츠 클럽을 조직했다고 하였다.
- 3 쥘 리메는 프로 선수가 출전하고,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월드컵을 기획했다. 이는 그가 생각하는 월드컵의 진정한 목적이 축구를 통한 국제 친선과 화합이었기 때문이다.
- 4 1924년과 1928년 올림픽 축구 종목에서 우루과이가 금메달을 차지했으나, 쥘 리메가 이를 도왔다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 5 쥘 리메의 고국인 프랑스에서도 첫 번째 월드컵에 대한 불참 여론이 강했으나, 오랜 설득 끝에 출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프랑스가 월드컵에 불참한 것은 아니다.
- 6 중요한 부분이나 인상 깊은 부분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겠지만, 내용을 외우기 위해 소리 내어 읽는 것은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는 방법과 거리가 멀다.
- 7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 이르러 월드컵의 해외 중계가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맞으나, 해외 위성 중계가 시작된 것은 1966년 월드컵 때의 일이다.
오답 풀이 ① 본선에 진출한 국가가 늘어,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24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고 하였다.
③ 월드컵에 첫 출전한 국가가 6개국이나 되었다고 하였다.
④ 월드컵 사상 최초로 100억 명이 넘는 텔레비전 시청자 수를 기록했다고 하였다.
⑤ 아시아·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에 1장씩만 배정되던 본선 진출권이 각각 2장씩 배정되었다고 하였다.
- 8 글쓴이는 진정한 월드컵의 시작을 2002년 한일 월드컵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대륙별 경기력 편차가 심하던 과거 월드컵과는 달리,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선 8강에 오른 국가들의 대륙별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 9 글쓴이는 이 글의 '끝' 부분에서 국가 간 화합과 이해를 높이고자 했던 쥘 리메를 떠올려 보며 한층 재미있게 월드컵을 즐기기를 제안하고 있다.
- 10 준서가 차례에 제시된 소재목을 통해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본 것은 '읽는 중'이 아닌 '읽기 전' 단계에서 점검하고 조정할 내용에 해당한다.

활동 응용 문제

34~39쪽

- 1 ④ 2 읽은 후 3 ④ 4 ⑤ 5 ⑤ 6 ② 7 ⑤
8 ④ 9 ⑤ 10 ④

- 1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관심이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독서 상황이 아닌 독서 수준에 맞는 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에 해당한다.
- 2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찾아보거나 읽은 책과 같은 주제를 다른 책을 읽어 보는 등의 활동은, 읽기 과정에 따라 글을 모두 읽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에 해당한다.
- 3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으면 능동적인 독자로 성장하여 글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읽은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 글을 읽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을 때의 좋은 점으로 보기 어렵다.
- 4 제시된 내용에서 학생은 관심 분야인 천문학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책을 선택하여 읽겠다는 읽기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 5 책을 쓴 작가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책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가가 책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출판사에서 제작한 책인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 6 선정한 책을 읽기 위해 독서 계획을 세울 때는, 책의 분량이나 자신의 독서 방식과 독서 시간, 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책의 가격은 경우에 따라 읽을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할 수 있으나, 독서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점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 7 제시된 내용에서는 '밤하늘에 그려진 동물들'이라는 소제목을 바탕으로,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별자리를 설명할 것이라고 글의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 8 책을 읽으며 독서 일지를 작성하면 읽은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독서 일지를 작성하며 글에서 이어질 내용을 일부 예측할 수 있으나 전체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독서 일지를 작성하며 책을 읽으면 글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글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독서 태도로 볼 수 없다.
③ 글과 관련 없는 배경지식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글의 내용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떠올릴 수 있다.
⑤ 글을 읽으며 생긴 궁금증과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어려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9 글을 읽는 중에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는 것은 점검 및 조정의 방법으로 적절하지만, 글쓴이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글을 읽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0 책을 선정하고 점검·조정하며 읽으면 독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독자로 성장하여 글을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문해력 키우기

41쪽

- 1 ○ 2 × 3 × 4 ○ 5 조정될 6 유래한
7 선정하였다 8 달성하였다 9 보완 10 창설
11 기량 12 진출

확인 문제

43쪽

- 1 수준 2 상황 3 목적 4 ㉠ 5 ㉠ 6 ㉠
7 ○ 8 × 9 × 10 ○

발전 활동 「정약용의 초서법」

내용 확인 문제

44~46쪽

- 1 ④ 2 역사 현실 3 ④ 4 ②

- 1 정약용이 남긴 편지를 보면, 그는 두 아들이 학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거나 입신출세하기 위해 글을 읽기보다 자기 삶에 대한 문제와 역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을 읽길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며 문신이다.
② 전라남도 강진에 귀양 가 있던 때,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네 살 때 천자문을 배우고, 열 살에 경서와 사서 등을 공부할 정도로 뛰어난 학문적 재능을 보였다.
⑤ 유배지에서도 공부할 집을 지은 뒤, 수천 권의 책을 읽고 글을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남긴 편지를 통해 정약용의 독서 목적은 학문적 지식의 습득이나 입신출세가 아닌 자기 삶에 대한 문제와 역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정약용은 자기 몸을 갈고 다듬는 데 필요한 책과 세상을 바로 잡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필요한 책을 읽을 것을 권했다. 그리고 후자의 예로 당시의 우리 민족이 딛고 서 있는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책과, 우리나라의 옛 문헌이나 문집과 같이 경제치용에 도움이 되는 책을 추천하였다.

- 4 정약용은 마구잡이로 그냥 읽어 내리기만 하는 남독에 대해 책을 읽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활동 응용 문제

47쪽

1 ②

- 1 정약용이 설명한 초서관, 큰 책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초서를 할 때는 자기 자신의 입장을 세우고, 책을 읽을 때 그 요점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야 한다. 책을 정독하며 모든 내용을 가감 없이 수용하는 것은 초서법에 따른 독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정약용은 책을 읽을 때, 자기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필요한 곳을 발췌하고 그것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③ 정약용은 책을 읽을 때 그 요점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것을 내용에 따라 분류해 두는 것이 학문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하였다.

④ 정약용은 책을 읽으며 초서하기에 힘써 게으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⑤ 정약용은 초서를 할 때 우선 학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뚜렷하게 세워야 판단 기준에 따라 책의 내용을 취사선택하기 용이하다고 하였다.

소단원 평가

48~51쪽

- 01 ③ 02 ② 03 ④ 04 ③ 05 ⑤ 06 ②
07 축구를 통한 국제 친선과 화합을 하기에는 너무 적은 국가가 참가했기 때문이다. 08 ③ 09 ③ 10 ③ 11 ③
12 자기 삶에 대한 문제와 역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13 ⑤

- 01 윤아는 소설에 대한 관심과 김유정 작가의 작품에 대한 자신의 흥미를 고려하여 여가 시간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봄·봄』을 선정하였다.

- 02 준서네 모듬은 축구에는 관심이 많지만, 월드컵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적어 월드컵의 유래와 역사를 다룬 책을 선정하여 읽고자 했다.

오답 풀이 ① 모듬 구성원 모두가 축구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한 책을 선정하였다.

③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아 독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여 두꺼운 책은 제외하였다.

④ 『축구의 세계』는 축구에 대해 너무 깊은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월드컵의 유래와 역사'는 잘 나타나지 않아 선정하지 않았다.

- ⑤ 책을 펼쳐 훑어보고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은 어렵지 않게 술술 읽힐 것 같아 함께 읽을 책으로 선정하였다.

참고 자료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독서 상황	• 독서의 목적 • 독서의 시기나 시간 • 독서의 방식이나 방법
독서 수준	• 글 내용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의 정도 • 배경지식의 정도 • 글 내용의 범위와 깊이 • 글에 쓰인 단어와 문장의 수준

- 03 <보기>의 준서는 글에서 다루는 주요 제재인 월드컵에 대하여 자신이 들어 본 내용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글 내용과 관련한 배경지식을 떠올리는 활동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글을 '읽기 전'에 점검·조정하는 방법

- 글을 읽는 목적 확인하기
- 차례를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 찾기
- 글 내용과 관련한 배경지식 떠올리기
- 제목이나 소제목 등으로 글의 내용 예측하기

- 04 (다)를 통해 올림픽 축구 대회는 아마추어리즘 원칙에 따라 프로 선수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월드컵은 모두의 화합을 위하여 프로 선수까지 출전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월드컵을 창설한 쥘 리메가 프랑스에서 태어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라)를 통해 첫 번째 월드컵이 1930년 남아메리카의 우루과이에서 개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다)를 통해 월드컵을 만든 쥘 리메가 유럽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를 통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국제 스포츠계에서 활약한 인물들 대부분이 귀족이거나 상류층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5 (가)에서는 쥘 리메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나)와 (다)에서는 그가 처음으로 축구와 연이 닿고 월드컵을 창설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그리고 (라)에서 1930년에 우루과이에서 첫 번째 월드컵이 개최될 수 있었던 이유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쥘 리메와 우루과이가 함께 만든 월드컵'이 이 글에 붙일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 06 <보기>에서 찾고자 계획한 '당시 프랑스 상류 사회나 중산층 사이에서 축구가 환영받지 못했던 이유'는 이 글의 내용 전개상 생략되거나 압축되어 다루지 않은 내용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스스로 찾아보며 글을 읽으면 읽은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글을 '읽는 중'에 점검·조정하는 방법

-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을 확인하고 전개될 내용 예측하기
- 생략되거나 압축된 내용, 모르는 단어나 궁금한 점 찾아보기
-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거나 표시하며 읽기
- 글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고 답 찾기
- 글의 내용과 자신의 생각 비교하기
-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이해하고, 문단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 07 (다)를 통해 질 리메가 생각하는 월드컵의 목적이 축구를 통한 국제 친선과 화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라)에서 우루과이에서 열린 첫 번째 월드컵에 참여한 국가의 수가 매우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과 같이 첫 번째 월드컵이 실패한 월드컵이라고 보는 이유는 축구를 통한 국제 친선과 화합을 하기에는 너무 적은 국가가 참가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질 리메가 월드컵을 만든 목적과 관련하여 ㉠의 이유를 알 맞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 08 (마)에서 글쓴이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진정한 월드컵의 시작으로 평가하며, 그 근거로 당시 들러리에 머물렀던 대륙의 국가들이 대거 8강에 진출하여 진출국의 대륙별 분포가 과거에 비해 고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들고 있다.

- 09 글을 읽은 뒤 월드컵의 본선 진출권을 따기 위한 과정에 대해 검색해 보는 것은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찾아보는 활동으로서, '읽은 후' 활동에 해당한다. 이외의 다른 활동들은 모두 '읽는 중' 활동이다.

오답 풀이 ①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거나 표시하며 읽는 것은 '읽는 중' 활동에 해당한다.

② 모르는 단어나 궁금한 점을 찾아보며 읽는 것은 '읽는 중' 활동에 해당한다.

④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이해하며 읽는 것은 '읽는 중' 활동에 해당한다.

⑤ 글의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며 읽는 것은 '읽는 중' 활동에 해당한다.

- 10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이와 같은 글을 읽으면, 글을 읽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수월해지며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능동적인 독자로서, 글을 읽으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적절하게 해결하며 읽기 그 자체에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었을 때 글쓴이의 생각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글을 '읽은 후'에 점검·조정하는 방법

- 글을 읽은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내용 정리하기
- 글의 주제나 주요 내용 정리하기
-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찾아보고, 자신의 읽기 활동 평가하기

- 11 이 글은 정약용의 독서 태도와 방법을 설명하는 중수필로서, (나)에서 정약용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활용해 실감 나고 설득력 있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다)에서 정약용의 독서 목적과 그가 권한 책을 언급하고 있으며, (라)에서 '초서법'이라는 바람직한 독서 방법의 예를 소개하고 있다. 정약용의 삶이 일부 나타나긴 하지만, 이를 통해 그의 인생 철학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

- 12 (나)는 정약용이 아들에게 쓴 편지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에서 정약용의 독서 목적이 학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거나 입신출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문제와 역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정약용의 독서 목적 두 가지를 (다)에서 찾아 한 문장으로 썼다.	☐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

- 13 (라)에서는 책을 읽을 때 초서하기에 힘써서 게으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정약용이 제시한 독서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책을 읽을 때 게으름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그것이 책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정약용이 제시한 초서란 큰 책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라)에 따르면 정약용은 정독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초서법을 제시하였는데, 초서란 큰 책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라)에서 초서를 할 때는 우선 학문에 대한 자기 자신의 입장이 뚜렷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라)에서 초서의 방법으로 자기의 주제적인 입장에서 필요한 곳을 발췌하고 그것을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글을 쓸 때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④ (라)에서는 정약용이 책을 닦치는 대로 많이 읽는 남독보다는 책을 깊이 있고 세밀하게 읽는 정독을 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02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 쓰기

소단원 한눈에 보기

54~55쪽

- 1 복합양식 자료
- 2 (1) ○ (2) × (3) ○
- 3 (1) 정보 (2) 정서 (3) 이유
- 4 ㉠, ㉡, ㉢, ㉣, ㉤
- 5 (1) ○ (2) × (3) ×
- 6 (1) 끝 (2) 처음 (3) 가운데

활동 응용 문제

58~69쪽

- | | | | | | | |
|------|------|------|---------|-----------|-----|-----|
| 1 ① | 2 ③ | 3 ④ | 4 ④ | 5 ③ | 6 ③ | 7 ⑤ |
| 8 ⑤ | 9 ⑤ | 10 ③ | 11 ①, ④ | 12 페스코 채식 | | |
| 13 ③ | 14 ③ | 15 ① | | | | |

- 1 선생님께 드리는 글이므로 예의를 갖추어 써야겠다는 것은 건의문을 읽을 독자가 영양 선생님을 고려한 내용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③ 글의 목적을 고려한 내용에 해당한다.
 ④ 글을 실을 매체를 고려한 내용에 해당한다.
 ⑤ 글의 주제를 고려한 내용에 해당한다.
- 2 쓰기 계획을 세울 때는 글의 목적, 글의 주제, 독자, 글을 실을 매체 등을 고려한다. 자료의 출처는 내용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의 신뢰도를 검토할 때 고려할 내용이다.
- 3 복합양식의 자료는 문자, 소리나 음악, 그림, 사진, 동영상 등 여러 가지 기호를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표현한 자료를 이른다. 라디오 뉴스는 소리만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자료로서 문자, 그림, 사진, 동영상 등 시각적 정보를 포함하기 어렵다. 따라서 라디오 뉴스는 복합양식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마)는 채식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학교의 사례와 학생의 긍정적인 반응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채식 위주 급식의 장점이나 효과 등을 강조하는 자료로 적절하며, 문제점을 강조하는 데 활용하기는 어렵다.
- 5 동아리 구성원이 직접 펴낸 소설의 표지는 동아리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소설 창작 동아리를 홍보하려는 글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를 동아리의 활동 성과로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소설집의 표지만으로는 소설의 구체적인 사건 전개나 줄거리를 전달하기 어렵다.
 ② 표지는 활동의 결과물을 보여 주는 자료일 뿐, 소설을 쓰는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로는 부적절하다.
 ④ 동아리 구성원이 직접 펴낸 소설집의 표지는 동아리 내에서 지켜야 할 운영 규칙과는 관련이 없다.

⑤ 표지에 제목이나 그림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동아리에서 다루는 소설의 주제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 6 글로 쓸 내용을 생성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점검할 때는 글의 목적과 글의 주제, 독자, 자료의 출처, 자료의 과장·왜곡 유무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한의 정보를 담고 있는 지를 바탕으로 자료를 점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7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만든 자료인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제작한 자료인지, 출처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최근의 자료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조회 수는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흥미 위주로 제작되어 조회 수가 높은 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
- 8 건의문의 '끝' 부분에는 건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글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건의문에서 제안한 해결책의 실현 가능성은 '가운데' 부분에 들어갈 내용이다.
- 9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글의 짜임을 구성하고, 각 부분에 들어갈 중심 내용을 고려하여 짜임에 맞게 개요를 작성한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세운다. 복합양식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을 생성하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의 활동이다.
- 10 이 글은 채식 식단 제공을 건의하는 글이며, 인터넷 매체에 게시되었다. 또한 글의 '가운데' 부분에서 단백질 섭취량과 관련된 그래프와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육류 위주 식단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의 독자는 육류 위주 식단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급식 식단을 구성하는 영양 선생님이다.
- 11 지류는 육식을 함으로써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많아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육류 위주의 식단이 유발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동물 단백질 섭취량과 과체중 및 비만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언급하며, 육류 위주의 식단이 유발하는 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12 지류는 영양 선생님이 채식으로 인해 학생들이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지 못할 것을 우려할 것이라 생각하여, 우유, 달걀, 어류를 먹을 수 있는 채식인 '페스코 채식'의 시행을 건의하고 있다.
- 13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 독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전문성을 드러내는 것은 적절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4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복합양식 자료의 종류가 다양한지의 여부는 글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 15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면, 내용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독자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를 활용할 때는 원래의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어선 안 되며, 사실에 근거하여 써야 한다.

문해력 키우기

71쪽

- 1 도입 2 선정 3 건의 4 섭취 5 ○ 6 ×
7 ○ 8 ○ 9 ㉠ 10 ㉡ 11 ㉢ 12 ㉣

확인 문제

73쪽

- 1 ㉠ 2 ㉡ 3 ㉢ 4 ㉣ 5 정보를 전달하는 글
6 정서를 표현하는 글 7 독자를 설득하는 글 8 ○ 9 ○
10 ×

발전 활동

활동 응용 문제

74~75쪽

- 1 ③ 2 ③ 3 ④

- 카드 뉴스는 시각 자료와 짧은 글을 결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 이를 제작할 때는 글의 주제, 예상 독자, 매체 자료의 효과적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카드 뉴스는 자유롭게 제작해서 게시하는 매체로,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서 보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 카드 뉴스는 여러 장의 이미지를 나열하여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체이다. 따라서 각 낱장마다 새로운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 다른 모듈의 카드 뉴스를 감상할 때는 흥미에 치우치기보다는 정보 자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내용의 정확성보다 자신의 흥미를 기준으로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수용 자세라 보기 어렵다.

소단원 평가

76~79쪽

- 01 건의문 02 ② 03 ③ 04 ③ 05 ① 06 ②
07 ② 08 ⑤ 09 ① 10 ④ 11 ④ 12 '처음'에 (가), '가운데'에 (나), (다), (라), (마), (바), '끝'에 (사)가 들어간다.
13 ② 14 ④ 15 내용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자료를 선별하고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매체를 활용하는 능력이 성장할 수 있다. 많은 양의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다.

01 지유는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는 육류 위주의 식단에 문제의식을 느껴, 영양 선생님에게 채식 식단 제공을 제안하는 글을 쓰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글의 갈래는 건의문이며 일반적으로 독자가 정해져 있다는 특성이 있다.

02 지유는 채식 식단을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 선생님에게 채식 급식 제공을 건의하기 위한 쓰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독자를 고려한 생각이므로 적절하다.

③ 글의 주제를 고려한 생각이므로 적절하다.

④ 글을 실을 매체를 고려한 생각이므로 적절하다.

⑤ 글의 목적을 고려한 생각이므로 적절하다.

03 (다)는 육식 위주 식습관이 청소년의 과체중과 비만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다룬 인터넷 기사이다. 따라서 (다)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육식 위주의 식습관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다.

오답 풀이 ① 채식주의자의 유형이 '비건 채식', '락토 채식', '페스코 채식' 등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식품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루고 있으며, 소고기, 양고기 등 육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채식 급식을 시행하는 다른 학교의 학생이 보이는 긍정적인 반응을 알 수 있다.

⑤ 급식에서 채식 식단을 다양하게 구성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04 (나)는 육식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는 사실을, (다)는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 청소년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따라서 (나)와 (다)는 육류 섭취로 인한 문제점을 제시하려고 할 때 활용할 자료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가)는 학교 급식에서 실천할 수 있는 채식을 설명하기 위해, (라)는 채식 급식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소개하기 위해, (마)는 전반이 늘어날 것이라는 문제 제기의 반론으로 활용할 수 있다.

05 <보기>의 자료는 온실가스의 종류 중 하나인 탄소가 배출된 뒤 순환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그림과 글이다. (가)~(마)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지유는 채식 급식 제공을 주제로 글을 쓰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자료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활용하기 어렵다.

06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생성할 때 자신의 배경지식을 점검할 수는 있으나,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의 자료를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독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면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복합양식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07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할 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만든 자료인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제작한 자료인지, 출처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비교적 최근의 자료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인지 확인하는 것은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08 '가운데' 부분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지유가 쓰고자 하는 글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글인 건의문이다. 건의문의 '처음' 부분에는 인사말, 자기소개, 건의문을 쓰게 된 이유 등이 포함되며, '끝' 부분에는 건의 내용의 요약정리, 마무리 인사 등이 포함된다. 글에 활용할 자료를 소개하는 내용은 '끝' 부분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09 글을 읽은 독자는 글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에서는 잔반이 늘어날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한 반론으로 채식 식단도 충분히 맛있게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웹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0 논설문, 비평문, 연설문 등과 같이 독자를 설득하는 글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타당하게 구성하여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자신이 체험한 내용이나 관찰한 내용을 앞에 배치하고, 그에 따른 깨달음과 교훈 등이 뒤에 놓이도록 조직하는 것은 수필이나 감상문과 같이 정서를 표현하는 글에 적합한 조직 방법이다.

11 ㉡은 채식 식단 제공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 중 하나인 학생들의 영양 섭취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페스코 채식 식단'의 시행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에서 채식 식단을 제공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를 지적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2 건의문은 '처음-가운데-끝'의 짜임으로 구성된다. (가)는 인사말, 자기소개, 건의문을 쓰게 된 이유를 다루고 있으므로 '처음' 부분에 해당한다.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는 (나)와 (다), 문제의 해결 방안을 다루는 (라), 제시한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과 기대 효과를 다루는 (마)와 (바)는 모두 '가운데' 부분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건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 (사)는 '끝' 부분에 해당한다.

13 <보기>의 그래프는 국내 청소년의 동물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나고, 식물 단백질 섭취량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지나친 육류 위주 식단이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는 (다)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4 글을 쓰는 과정에서 글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관련 자료를 더 수집하여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복합양식의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면 내용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독자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양의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할 수 있으므로 단일양식 자료에 비해 글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며, 복합양식 자료를 선별하고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매체를 활용하는 능력이 성장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면 좋은 점을 한 가지 이상 알맞게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

대단원 평가

84~87쪽

- 01 ⑤ 02 ⑤ 03 ② 04 ① 05 ② 06 ③
 07 대륙별 경기력 편차가 심했다. 08 ③ 09 ③ 10 ③
 11 (다)는 쓰려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12 ③ 13 ④

01 <보기>의 윤아는 김유정의 「동백꽃」을 재미있게 읽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같은 작가의 책인 『봄·봄』을 여가 시간에 읽을 책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윤아는 다양한 작가의 작품이 아닌, 김유정 작가의 다른 작품을 읽어 보고 싶었다고 말하였다.

02 <보기>는 책의 제목이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이 세계의 역사와도 관련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차례에서 제시된 소제목을 바탕으로, 쥘 리메가 월드컵을 처음 만든 사람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제목이나 소제목으로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03 (나)는 쥘 리메의 출생 배경과 성장 과정, 그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을 중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쥘 리메는 다른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단체를 조직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그가 축구 선수로서 활약을 한 것은 아니다.

04 쥘 리메가 1897년 파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 클럽 '레드스타'를 조직한 것은 사실이나, 이 당시 대부분의 스포츠 클럽과는 달리 신분과 계급을 불문하고 회원들을 받았다.

05 이 글은 월드컵의 유래와 역사 및 최초의 진정한 월드컵에 대해 다룬 중수필로서, 월드컵과 관련한 글쓴이의 경험이 아닌 특정 인물의 생애와 사회적 배경을 다루고 있다.

오답 풀이 ① 1982년 스페인 월드컵과 2002년 한일 월드컵 각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③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진정한 의미의 월드컵으로 바라보는 글쓴이의 견해가 (라)에 드러난다.

④ 월드컵 사상 최초로 100억 명이 넘는 텔레비전 시청자 수를 기록한 1982년 월드컵 등을 언급하며 월드컵이 발전해 온 여정을 나타내고 있다.

⑤ (마)에서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국가 간 화합과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한 쥘 리메를 떠올리며 월드컵을 즐기기를 제안하고 있다.

06 (가)와 (나)를 통해 1982년 스페인 월드컵은 본선 진출국과 첫 출전 국가가 증가했으며 100억 명이 넘는 텔레비전 시청자 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많은 축구 전문가들에게 '최초의 진정한 월드컵'이라 불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강 진출국의 대륙별 분포가 상당히 고르게 나타난 대회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다.

07 (다)에서 글쓴이는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 유럽과 남미 대륙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성적이 저조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처럼 대륙별 경기력 편차가 심했기에 1982년 월드컵을 진정한 월드컵으로 부르기 어렵다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08 이 글에서 글쓴이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진정한 월드컵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궁금해서 인터뷰 자료를 찾아봤다는 것은 글을 읽은 후의 점검·조정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⑤ 글을 읽은 후에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찾아보는 활동이다.
 ② 글을 읽은 후에 자신이 글을 읽은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활동이다.
 ④ 글을 읽은 후에 글을 읽은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이다.

09 <보기>에 나타난 정약용의 독서 목적은 모든 백성의 살림을 윤택하게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번성하게 자라게 하는데 있다. 즉 정약용은 학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거나 입신출세하는 것이 아닌 자기 삶과 역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독서의 진정한 목적으로 보았다.

10 (나)는 식품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룬 인터넷 뉴스 영상으로, 육식 위주 식단이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나)를 활용한다면 채식 식단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그러나 (나)를 통해 잔반 없는 식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1 (가)~(라)의 자료를 수집한 이유는 채식 식단 제공을 건의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이다. (가)는 학교 급식에서 실천할 수 있는 채식의 방법을 설명할 때, (나)는 채식 급식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라)는 건의문의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다)는 채식 식단 제공을 건의하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글을 쓸 때 활용하기 어렵다.

평가 기준	확인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자료로 (다)를 쓰고 그 이유를 알맞게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

12 복합양식 자료는 문자, 소리나 음악, 그림 등 여러 가지 기호가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표현한 자료로서, 웹 페이지, 카드 뉴스, 방송 영상 등이 있다. 이를 활용하여 글을 쓰면 내용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러한 복합양식 자료를 글에 활용할 때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이는 재가공 여부와 상관없이 지켜야 한다.

13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쓴 글을 점검할 때는 글의 목적과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냈는지, 독자의 배경지식, 관심사나 요구에 맞는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글을 실은 매체에 적절한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였는지, 쓰기 윤리를 준수하며 글을 썼는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때 글의 유형과 상관없이 내용을 조직하였는지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알맞은 구조로 내용을 조직하였는지 점검해야 한다.

한 걸음 더 서술형 문제

88~89쪽

01 글을 읽는 목적을 확인한다. 차례를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을 찾는다. 글 내용에 관한 배경지식을 떠올려 본다. 제목이나 소제목 등을 보며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본다.

02 앞으로 월드컵이 누구에 의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03 독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능동적인 독자로 성장할 수 있다. 읽은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

04 올림픽 축구 대회는 프로 선수의 참가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유령을 중심으로 진행된 반면에, 월드컵은 프로 선수까지 출전할 수 있었으며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

05 책을 닦치는 대로 많이 읽는 것보다 책을 깊이 있고 세밀하게 읽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06 • ㉠: 인사말과 자기소개

• ㉡: 건의 내용의 요약정리

07 <보기>를 통해 육식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육류 위주 식단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채식 급식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01 글을 읽기 전 활동은 독자가 독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능동적인 독자로서 글을 읽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글을 읽는 목적을 확인하고, 차례를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을 찾고,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리거나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글을 읽기 전 할 수 있는 점검하고 조정하는 활동을 두 가지 이상 알맞게 썼다.	☐

02 ㉠은 글의 '처음' 부분을 마무리하는 문장으로,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예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장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월드컵의 시작과 창설자에 관한 내용이 이어질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측하여 글을 읽으면 능동적인 독자로서 글을 읽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앞으로 월드컵이 누구에 의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다룰 것이라는 내용을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

03 <보기>는 글을 읽으며 생략되거나 압축된 내용을 찾아본 것이다. 이와 같이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으면 글을 읽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수월해지며, 읽은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 또한 능동적인 독자로 성장하여 읽기 그 자체에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한 걸음 더 고득점 문제

- 01 ② 02 ⑤ 03 ④ 04 ④ 05 ② 06 ④
 07 ② 08 ⑤ 09 ③ 10 ⑤ 11 ③ 12 환경 보
 호에 기여할 수 있고, 모든 학생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다.
 13 ⑤

평가 기준	확인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었을 때의 효과를 한 가지 이상 알맞게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

- 04 올림픽 축구 대회가 아마추어리즘 원칙과 유럽 중심의 운영이라는 한계를 지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월드컵은 프로 선수의 참가를 허용했으며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지향했다. 이는 축구를 통해 국제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한 질 리메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대조의 방법을 활용하여 썼다.	☐
올림픽 축구 대회와 월드컵의 차이점 두 가지를 모두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

- 05 <보기>에서 정약용은 단순히 많은 양의 글을 마구잡이로 읽어 내리는 방식을 경계하고 있다. 대신 글을 읽다가 의미를 모르는 구절이나 글자를 만났을 때,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깊이 생각하며 그 근본을 세밀하게 파헤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적절하지 않다고 본 독서 방법과 적절하다고 본 독서 방법을 모두 알맞게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

- 06 제시된 개요는 학교 급식에 채식 식단 제공을 요청하는 건의문의 개요로, 건의문에 맞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먼저 '처음' 부분의 ㉠에는 글을 시작하는 인사말과 함께 글을 쓰는 이가 누구인지 밝히는 자기소개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끝' 부분의 ㉡에는 '가운데'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바탕으로 자신의 건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고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에는 인사말과 자기소개가 들어간다는 내용을 썼다.	☐
㉡에는 건의 내용의 요약정리가 들어간다는 내용을 썼다.	☐

- 07 <보기>의 자료는 식품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치화하여 보여 주는 복합양식 자료이다. 특히 육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가운데' 부분에 활용한다면, 육식 위주의 식단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채식 식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건의 내용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자료의 내용을 알맞게 해석하여 썼다.	☐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채식 급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 01 독자가 읽을 글을 선정할 때는 자신의 독서 상황과 독서 수준에 맞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때 독서 상황에는 독서의 목적, 독서의 시기나 기간, 독서의 방식이나 방법 등이 있으며, 독서 수준에는 글 내용에 대한 흥미나 배경지식의 정도, 글 내용의 범위와 깊이, 글에 쓰인 단어와 문장의 수준 등이 있다. 그러나 글을 읽은 사람의 수는 글의 대중적 인지도를 나타낼 뿐, 글을 선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02 (라)를 통해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북중미 국가들이 8강에 오르며 대륙별 경기력 편차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유럽과 남미 국가가 처음으로 예선 탈락을 하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를 통해 1982년 이전의 월드컵은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에 할당된 본선 진출권 수가 매우 적어 전 지구적 대회로 보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② (라)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8강에 오른 국가들로 대한민국, 세네갈, 미국을 언급하였다.

③ (나)를 통해 198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본선 진출국이 24개 팀으로 늘어났으며, 첫 출전 국가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월드컵의 '월드'에는 세계 모든 대륙의 국가가 참여하는 '전 지구적인 축구 대회'라는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03 <보기>는 글쓴이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내용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글의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는 활동에 해당하며, 이러한 점검·조정 과정을 통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독자로 성장할 수 있다.

- 04 '하늘의 별 따기'는 무엇을 얻거나 이루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다. 반면 '식은 죽 먹기'는 어떤 일이 매우 하기 쉽다는 의미이므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본선 진출이 어려웠다는 본문의 맥락과는 정반대의 의미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제외하다(제외한)'는 '따로 떼어 내어 한데 헤아리지 아니하다.'라는 의미, '빼다(뺀)'는 '전체에서 일부를 제외하거나 덜어 내다.'라는 의미이므로, 그 뜻이 유사하여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결다리'는 '부수적인 것'이라는 의미, '들러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일의 주체가 아닌 결따르는 노릇이나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그 뜻이 유사하여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할당되다(할당된)'는 '몫이 갈라져 나뉜다.'라는 의미, '배당되다(배당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뉘어 주어지다.'라는 의미이므로 그 뜻이 유사하여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부족하다'는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미이므로, 전 지구적 대회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맥락에서 '한계'와 바꾸어 쓸 수 있다.

05 (가)에서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독서의 진정한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는 단순히 학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거나 개인의 입신출세를 위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살림을 윤택하게 하고 세상을 번성하게 만들기 위해 책을 읽을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정약용이 지식 습득을 위해 독서했다는 설명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06 정약용이 강조한 초서관, 책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문에 대한 자기 자신의 입장과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글쓴이가 추천한 모든 내용을 자신만의 기준이 없이 빠짐없이 모두 기록하는 것은 정약용이 제시한 독서법과 거리가 먼 행동이다.

오답 풀이 ① 독서 목적을 분명히 세우는 것은 책을 읽기 전에 자기 자신의 문제의식 또는 주관을 확실히 정하고, 입장을 뚜렷하게 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② 의미를 모르는 글자를 만날 때마다 세밀하게 연구하여 그 근본을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과 일치하는 활동이다.

③ 자기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필요한 곳을 발췌하는 활동으로 정약용이 제시한 독서법에 해당한다.

⑤ 책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활동으로 정약용이 제시한 독서법에 해당한다.

07 (가)에서 정약용은 실용의 학문에 뜻을 두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하는 글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보기〉에서도 국화를 단순한 감상의 대상으로 치부하지 않고, 선비의 식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약용이 실제적인 쓰임과 이로움을 추구하는 실용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08 학교 누리집 게시판은 문자뿐만 아니라 사진, 그림, 영상, 소리 등 여러 가지 기호를 결합한 복합양식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인터넷 매체이다. 건의하는 글을 쓸 때 이러한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따라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진이나 영상 등의 기호를 활용해선 안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9 〈보기〉의 영양 선생님은 채식 식단 도입 시 학생들이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설득하려면 채식을 하면서도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우유, 달걀, 어류 등을 섭취하는 채식 주의의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면, 균형 있는 영양 섭취에 대한 영양 선생님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영양 선생님이 우려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②, ⑤ 채식 식단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영양 선생님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④ 채식 식단 도입의 장점을 드러내는 자료로 활용해 영양 선생님을 설득할 수는 있으나, 영양 선생님이 우려하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10 이 글은 채식 식단의 도입을 건의하기 위해 쓴 글이다. 건의문은 일반적으로 '처음-가운데-끝'의 구성을 따르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해결 방안과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제시한다. 건의문의 '처음' 부분에는 인사말, 자기소개, 건의문을 쓰게 된 이유를 제시한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문제의 심각성 및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 및 기대 효과 등을 통해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한다. 마지막 '끝' 부분에서는 건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인사를 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한편 글쓴이가 관찰한 내용과 그로 인한 교훈이 드러나도록 조직하는 것은 건의문이 아니라 수필 등과 같이 정서를 표현하는 글에 적합한 방법이다.

11 복합양식 자료는 글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글쓴이가 선생님께 건의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은, 채식 식단 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되거나 영양 선생님을 설득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2 글쓴이는 육류 위주의 식단이 환경 오염을 유발하며,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이유로 들어 채식 식단의 제공을 건의하고 있으며, 채식 식단의 제공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청소년의 건강을 챙길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채식 식단 제공의 효과 두 가지를 알맞게 썼다.	☐
두 가지 효과를 한 문장으로 썼다.	☐

13 이 글은 학교 급식에 채식 식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건의문이다. 글쓴이는 건의 사항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채식 식단의 도입 횟수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영양소의 불균형 문제를 우려할 독자를 고려해 가벼운 단계의 채식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⑤와 같은 맺글은 이 글을 바르게 이해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서로를 잇는 이해와 소통

01 세상을 담은 문학

소단원 한눈에 보기

98~99쪽

- 1 (1) ○ (2) ○
- 2 (1) 배경 (2) 대화 (3) 주제
- 3 (1) 열악한 (2) 한국 전쟁
- 4 (1) 낙천적 (2) 의지적 (3) 비관적
- 5 외나무다리
- 6 (1) × (2) ○

제재 「수난시대」

스스로 확인하기

102~119쪽

- (1) ○ (2) × (3) 주막 (4) 고등어 (5) ○ (6) ○ (7) 공습경보
- (8) 공습 (9) × (10) 절망감 (11) ○ (12) ○ (13) 수류탄 (14) 고등어
- (15) × (16) 외나무다리

내용 확인 문제

102~119쪽

- 1 ④ 2 ⑤ 3 전사, 총알 4 ① 5 ③ 6 정거장
- 대합실 7 ⑤ 8 ③ 9 ① 10 이끼 낀 나무토막
- 11 ⑤ 12 ④ 13 ① 14 술, 국수 15 ③ 16 ④
- 17 ④ 18 ④ 19 ⑤

- 1 이 글에는 만도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며 설렘을 느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만도가 아내를 잃고 아들을 혼자 키웠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앉아 쉬면 뭐할 끼고'와 같은 토속적인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
- 2 만도는 진수가 병원에서 나온다고 하니 '어디를 좀 다치기는 다친 모양이지만, 설마 나같이 이렇게사 되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만도는 진수가 자신과 같이 신체의 일부를 잃었을까 봐 혹은 크게 다쳤을까 봐 내심 불안해하며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이 글은 한국 전쟁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전사', '총알'과 같은 단어를 통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4 만도는 한쪽 팔이 없어 균형을 잡고 외나무다리를 건너기 어려우며, 외나무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굴러떨어졌던 경험도 있다. 따라서 외나무다리가 만도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만도가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만도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는 공간은 외나무다리가 아닌 주막이다.

오답 풀이 ② 외나무다리에서 굴러떨어져서 창피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도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에서 만도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다.

③ 만도는 외나무다리를 건너던 중, 언젠가 읍에서 돌아오다가 물에 굴러떨어졌던 과거의 일을 떠올리고 있다.

④ 한쪽 팔이 없어 균형을 잡고 걷기 어려운 만도에게 외나무다리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

⑤ 외나무다리에서 굴러떨어져서 젖은 옷을 벗어 말리게 된 만도는 팔이 없는 몸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없어 물속에 몸을 숨겨야 했다.

- 5 만도는 주막을 지나쳐 장거리를 찾아가는데 그 이유는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는 진수에게 맛있는 반찬을 차려 주고 싶기 때문이다. 만도는 장거리에서 한참을 서성거리다가 고등어 한 손을 산 후 정거장으로 향한다.

- 6 만도는 진수를 기다리기 위해 정거장 대합실에 앉아서 담배 한 개를 빼 물고 불을 당기다가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떠올린다. 만도가 '그 일이 머리에 떠오르면, 등골을 찬 기운이 짙 스쳐 내려가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그 기억은 무섭고 끔찍한 기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7 만도는 징용을 가는 부당한 현실에 대응할 힘이 없었고, 징용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을 겪었다. 즉 만도가 고지식해서 힘든 일도 군말 없이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우리 민족에게 부당함에 항의할 힘이 없었던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징용지로 가는 배 안에서 바뀐 환경과 징용지에서의 고된 강제 노동에도 적응하는 만도의 모습에서 시련을 극복하는 강인한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② 울고 있는 마누라를 보고 슬펐다가 차창 밖으로 새로운 풍경이 보이자 아무렇지 않아지는 만도의 모습에서 슬픔을 금방 잊는 단순한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③ 징용을 가면서도 황혼을 보고 감탄하여 고향을 질러 대는 만도의 모습에서 낙천적인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④ 울고 있는 마누라를 보며 모른 척하다가 눈물을 글썽이는 만도의 모습에서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깊은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 8 만도는 징용을 가서 비행장을 만드는 일에 투입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물도 입에 맞지 않고 음식도 이내 변하는 고달픈 현실 속에서 병이 돌아 일을 하다가도 쓰러졌지만, 만도는 고된 노동에도 적응하여 잘 극복했으며, 쓰러지지도 않았다.

- 9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미리 독자에게 넌지시 암시하는 서술 방식을 복선이라고 한다. 만도가 불을 당기는 차례가 된 것 자체는 불길한 조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만도에게 닥칠 비극적인 사건을 암시하는 복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이 글에서는 다이너마이트 폭파 사고로 떨어져 나간 만도의 팔뚝이 ‘이끼 낀 나무토막’처럼 보인다고 하며, 직유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11 만도는 진수가 다리를 잃고 돌아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거장에서 두 개의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리며 걸어 나가는 상이군인이 진수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즉 만도가 진수를 쉽게 찾지 못한 이유는 상이군인이 자신의 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2 만도는 진수를 만나기 전에는 진수를 만날 생각에 설레고 기대하면서도, 진수가 병원에서 나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초조함과 긴장감을 느낀다. 그러다가 기차에서 내리는 인파 사이에서 진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진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한다. 그리고 마침내 만난 진수가 한쪽 다리를 잃은 모습에 충격을 받고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13 한쪽 다리가 없는 진수는 앞장서 가는 만도와 한 걸음 두 걸음씩 뒤지기 시작하면서 작은 소리로 불려서는 들리지 않을 만큼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때 진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글픔과 슬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등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이 장면에서 한쪽 팔을 잃은 아버지를 안쓰러워하는 진수의 심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14 절망감을 느끼며 주막에 들른 만도는 거둬해서 술 석 잔을 마시고 마음을 진정시킨다. 그리고 주막 여편네에게 진수에게 먹일 국수 한 그릇을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한다. 만도가 진수에게 시켜 준 국수에는 진수에게 화를 낸 것에 대한 만도의 미안함과, 진수에 대한 만도의 애정이 담겨 있다.

15 만도는 한쪽 다리 없이 앞으로 살아갈 일을 걱정하는 진수에게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것이라고 하며, 자신도 팔이 하나 없어도 잘만 산다고 하였다. 따라서 만도가 자신이 팔 하나가 없어서 잘 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은 맞지 않는다.

16 만도는 자신과 아들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삶의 길을 찾고자 하는 의지적, 적극적,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진수는 다리를 잃어 자신감을 상실하였지만 자신을 위로하는 만도의 말에 결국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는 소극적, 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17 외나무다리는 만도와 진수의 갈등을 해소 시키고 화합을 이루게 하며, 역경을 딛고 시련을 이겨 내리라는 만도와 진수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만도와 진수는 모두 외나무다리를 건너면서도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외나무다리가 인물들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18 만도는 한쪽 다리를 잃고 돌아온 아들에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이렇게 만든 상황에 대해 화가 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만도는 진수를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며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라고 생각하며, 비극적인 처지에 놓인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을 느낀다.

③ 만도는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진수 니 신세도 참 똥이다. 똥.’이라고 생각하며, 아들이 다리를 잃게 만든 세상에 대한 원망을 느끼고 있다.

⑤ 만도는 고등어를 손에 든 진수를 업고 외나무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고 있다. 이는 서로 협력하면 시련을 극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가 느껴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19 이 글의 결말 부분은 시선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전환되고, 서술의 초점이 인간에서 자연으로 바뀌고 있다. 이를 통해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개인적 차원에서 민족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수난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삶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고 있다. 열린 결말이지만, 인물 간의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활동 응용 문제

120~123쪽

1 ④ 2 ① 3 ④ 4 ⑤ 5 극복 6 ③ 7 ③

1 만도는 일제 강점기 때 강제 징용으로 섬에 끌려가 비행장을 만드는 일에 동원된다. 이때 굴 안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사고로 한쪽 팔을 잃게 된다. 이 글에 만도가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여 총격전에 동원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참고 자료

태평양 전쟁

태평양 전쟁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일부로,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다. 일본은 당시 자신들의 침략 아래 있던 우리나라에서 많은 인력과 물자를 동원했는데, 수많은 한국인들이 각지의 일본 군사 기지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했다.

2 전쟁 중에 수류탄 파편을 맞아 한쪽 다리를 잃고 “이래 가지고 나 우째 살까 싶습니다.”라고 걱정하는 진수의 모습에서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반면 이런 진수에게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기다.”라고 하며 서로 일을 나누어서 하자고 제안하는 만도의 모습에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3 이 작품에 나타나는 ‘공습’은 만도가 징용을 갔을 때 적의 항공기가 공중에서 습격할 때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쟁 중이었던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나타낸다. ‘공습’이라는 단어를 통해 징용에 다녀온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 4 만도와 진수는 전쟁이라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으로 인해 신체의 일부를 잃는 수난을 겪는다. 이러한 두 인물에게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것은 헤쳐 나가기 어려운 문제 상황이다. 따라서 외나무다리는 전쟁과 같은 고난과 시련을 상징한다.

오답 풀이 ①, ② 이 글에서 진수가 휴식을 취하거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만도는 외나무다리에서 굴러떨어져 창피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웃는다. 이 장면을 통해 만도의 낙천적인 성격을 알 수 있으며, 외나무다리는 만도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외나무다리는 만도와 진수가 서로 의지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공간으로,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화합을 이루게 하는 매개체이다.

- 5 만도와 진수가 서로 힘을 합쳐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모습은 두 인물이 고난과 시련을 함께 극복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를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해석하면 우리 민족이 화합과 협력을 통해 수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 6 현재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작품 속 인물이 겪은 사회·문화적 상황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 속 인물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7 이 작품의 만도와 진수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이라는 민족의 수난 속에서 일어난 개인의 비극을 화합과 협력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민족의 수난 속 개인의 비극은 극복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아버지 세대인 만도와 아들 세대인 진수가 갈등을 겪다가 화합하는 모습을 통해 현대 사회의 세대 갈등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② 만도와 진수가 화합과 협력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수난을 극복하려고 했듯이, 오늘날에도 화합과 협력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④ 고난과 시련을 겪은 만도와 진수가 앞으로 힘을 합쳐서 살아가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과거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 내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⑤ 이 작품을 통해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만도와 진수를 비롯한 우리 민족에게 준 아픔을 느낄 수 있다.

문해력 키우기

125쪽

- 1 ○ 2 ○ 3 × 4 × 5 흥청거릴 6 배기지
7 황송한 8 미심쩍은 9 재촉 10 예사 11 광경
12 절단

확인 문제

127쪽

- 1 배경 2 사건 3 소재 4 등장인물 5 × 6 ○
7 ○ 8 ㉠ 9 ㉡ 10 ㉢

발전 활동 「하여가」, 「단심가」

내용 확인 문제

128쪽

- 1 ④

- 1 「하여가」는 현실과 타협하지는 의도를 '참당굴'에 비유하며 우회적으로 설득하고, 「단심가」는 '죽어'를 반복하여 자신의 단호함과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며 직접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하여가」와 「단심가」는 모두 고려 말에 지어진 시조로,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로 고정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②, ③ 「하여가」는 조선을 건국하려는 현실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고, 「단심가」는 새 나라의 건설에 반대하며 고려를 끝까지 지키려 하는 도덕적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즉 두 시조에는 정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⑤ 「하여가」는 '드령침'이 서로 얹혀 사는 것처럼 함께 어울려 조화롭게 살 것을 노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답가인 「단심가」는 '죽어'를 반복하며 자신의 단호한 마음과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활동 응용 문제

129쪽

- 1 ③

- 1 고려 말, 이성계가 외적을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워 백성들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왕의 힘은 약해졌고 이성계의 힘은 날로 커졌다. 따라서 두 작품이 창작된 시기에 고려의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평가

130~135쪽

- 01 ⑤ 02 ③ 03 외나무다리 04 ⑤ 05 ⑤
 06 ④ 07 (가) 08 ④ 09 ⑤ 10 ④ 11 ⑤
 12 논두렁길 13 ⑤ 14 ⑤ 15 ② 16 우리 민족
 의 수난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의미한다. 17 ④ 18 ①
 19 ㉠ 이방원, 정몽주 ㉡ 고려(고려 왕조)

01 이 글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과 인물의 심리까지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과 작품 밖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서술하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 혼용되고 있다. 주인공인 '나'가 자신이 겪은 사건과 내면 심리를 서술하는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 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전사'와 같은 단어를 통해 한국 전쟁이라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② 만도가 '병원에서 나온다 하니 어디를 좀 다치기는 다친 모양이지만, 설마 나같이 이렇게사 되지 않았겠지.'라고 내심 불안감을 느끼는 장면이 진수의 비극을 암시하는 복선에 해당한다.

③ 만도가 용머리재, 외나무다리, 장거리로 공간을 이동함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④ '외나무다리', '고동어'와 같은 일상적 소재는 각각 '고난과 시련', '진수에 대한 만도의 사랑'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02 만도는 장거리에서 한참을 고르다가 진수를 위해 '고동어 한 손'을 구매한다. 이는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는 아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차려 주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 것으로, 아들에 대한 만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소재에 해당한다.

03 만도는 외나무다리를 조심히 건너가면서 과거 외나무다리에서 굴러떨어져 창피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이 경험을 떠올리면서도 웃는 모습을 통해 만도의 낙천적인 성격을 알 수 있다. 또 한쪽 팔이 없어 균형을 잡기 힘든 만도에게 이 외나무다리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04 (다)에서 만도는 외나무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굴러떨어졌을 때 창피함을 느낀다. 그러나 이 창피함은 옷이 젖었다거나 옷이 마를 때까지 발가벗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팔뚝 하나가 없는 몸을 드러내 놓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05 (가), (나)에서 만도는 징용을 갈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울고 있는 아내를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으나 차창 밖으로 새로운 풍경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아진다. 이를 통해 단순하고 낙천적인 만도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만도가 주변 사람들을 따라하거나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낯선 장소인 섬에서 고된 일을 하다가 벌떡 자빠지기도 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만도는 넘어지지도 않고 물도 입에 맞아 가며 고된 일에 적응해 나간다.

③ 만도는 올 밖에서 울고 있는 아내를 보고 코허리가 찡했다고 하였다. 또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속정이 깊은 만도의 성격을 알 수 있다.

④ 이 글에서 공습경보가 나면 일을 하던 손을 놓고 모두가 굴 바닥에 납작납작 엎드려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사이렌도 미처 불기 전에 비행기가 넘어 달려드는 때에는 만도가 질겁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공습경보에 아랑곳하지 않는 성격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 자료

소설의 등장인물

소설 속 인물은 이야기 속의 다른 인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존재 의미를 드러낸다. 또한 인물은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에 깊이 관여되어 그 시대를 대변하기도 한다. 이처럼 등장인물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면모를 보여 주는 동시에, 소설의 바탕이 되는 시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06 만도와 같이 징용을 간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일을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높은 임금을 보장받았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정거장 대합실에서 어디로 끌려가기도 모르고 백명 남짓하게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만도를 바라보는 만도 아내의 모습을 통해, 징용으로 가족과 이별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② 징용에 끌려 간 사람들이 비 오듯 땀을 흘리며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하고, 입에 맞지 않는 물과 변한 음식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통해 징용지의 열악한 환경으로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③ 공습이 있을 때 가장 많은 손해를 입고 그때 만도도 한쪽 팔뚝을 잃어버렸다는 내용을 통해, 징용지에서 위험에 내몰린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징용에 가서 군사 시설인 비행장을 닦는 만도의 모습을 통해, 전쟁 중 징용에 동원된 사람들이 군사 시설의 건설에 투입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07 이 글은 만도가 정거장 대합실에 앉아 있다가, 바로 그 정거장에서 징용에 갔었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이후 만도가 한쪽 팔을 잃게 된 이유와 그 과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이는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며, 이 글에서 만도의 회상이 시작되는 부분은 (가)이다.

08 만도가 진수를 만나서 '두 눈이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지며, '한참 동안 그저 멍멍하기만 하다가, 코허리가 찡해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도는 것'은 진수가 돌아온 것에 감격한 것이 아니라 한쪽 다리를 잃은 진수의 모습에 놀라 충격을 받은 것이다.

09 <보기>는 복선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복선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미리 독자에게 던지시 암시하는 서술 방식이다. (가)에서 만도가 성냥을 꺼내며 꺼림직한 기분을 느끼고 모기에 물린 자리가 자꾸 쑤서 굼었지만 도무지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으며 성냥불이 자꾸 꺼지는 장면이 만도의 불행을 암시하는 복선에 해당한다. 하지만 심지에 불이 붙자 만도가 굴 밖으로 몸을 날리는 것은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기 전 몸을 피한 필연적인 행동으로, 비극적인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

10 만도는 ㉠에서 진수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며 기대감과 설렘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진수를 발견하지 못하자 ㉡에서 진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함과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한쪽 다리를 잃은 채 서 있는 진수를 보고 충격을 느낀 뒤 ㉢에서 속상함과 안쓰러움을 느낀다.

11 정거장에서 진수를 만난 만도는 뒤따라오는 진수를 돌아보지도 않고 부지런히 걸어간다. 그러나 주막에서 나온 후 만도는 진수를 앞세워 걷는다. 이는 마음이 누그러진 만도가 아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으로, 진수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만도는 국수 한 그릇을 말아 달라고 부탁하며 “곰뽕기로 잘 쪼……. 참치름도 치소, 잉?”이라고 하며 진수의 국수를 살뜰히 챙기고 있다.

② 한쪽 다리를 잃은 진수의 모습에 분노하던 만도는 술을 마시고 나서 속이 좀 풀리는 것 같다고 하였다.

③ 만도는 “에라이, 이놈아!”라고 모질게 말하는데, 이는 한쪽 팔을 잃은 자신에 이어 아들까지 다리를 잃게 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을 표현한 것이다.

④ 한쪽 다리밖에 없는 진수는 방문턱 위로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방에 들어오지 않고 방문턱에 앉는다.

12 만도는 전쟁 중에 한쪽 다리를 잃고 돌아온 진수를 보고 분노와 절망감을 느껴 성큼성큼 앞장서 걷는다. 그러나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논두렁길에 이르렀을 때는 진수를 앞세우며 아들을 배려한다. 이는 만도가 자신들에게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난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13 만도가 (다)에서 ‘정신이 아른하다.’라고 한 것은 분노하고 절망했던 마음을 다소 진정시키고 갈등이 해소될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진수가 한쪽 다리를 잃은 채로 돌아온 상황이므로 만도가 안도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쟁의 상처가 모두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14 (가)에서 진수는 앞으로 살 일을 걱정하고, 만도는 진수를 위로한다. 이에 진수는 “그럴까예?”라고 동조하기 시작한다. 이로 미루어볼 때 만도가 위로하는 말에 진수가 한숨을 쉰 것은 만도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앞날에 대한 걱정이나 긴장이 풀리며 한숨을 내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5 (나)에서 진수가 고통어를 들고 만도가 진수를 업은 채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것은 자신들에게 닥친 시련을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여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긴 행동으로,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나)와 (다)는 사건이 마무리되고 인물의 갈등이 해소되는 ‘결말’에 해당한다.

③ (나)에서 만도와 진수가 서로 도우며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모습은 고난을 극복하려는 인물들의 의지가 드러나 독자에게 극적인 감동을 준다.

④ (다)에서 만도는 진수가 세상을 잘못 만나서 신세를 망쳤다고 생각하고, 진수는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힘들 것을 생각하며 서로를 안쓰러워하고 있다.

⑤ (다)에서 만도가 진수를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용머리재가 가만히 내려다보는 장면은 서술의 초점이 인간에서 자연으로, 시선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개인적 차원에서 민족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민족사적 의미를 부여하며 독자가 그들의 앞날을 상상할 수 있는 여운을 남기고 있다.

16 만도와 진수가 협력하여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장면은 서로 힘을 합쳐 수난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곧 우리 민족의 고난과 비극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의미한다.

평가 기준	확인
수난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의미한다는 내용을 썼다.	☐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

17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재가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만도와 진수를 내려다보는 장면은 인간이 겪는 고난과 수난, 그리고 극복의 과정이 자연의 흐름 속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전쟁으로 훼손된 자연을 우려한다는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참고 자료

‘하근찬’의 작품 세계

- **농촌 중심의 배경**: 전쟁의 상처가 남은 농촌을 배경으로 한 많은 작품을 남김. 이는 작가가 농촌을 우리 민족의 고통이 가장 절실하게 쌓인 현장으로 보았기 때문임.
- **사실적 묘사와 민족적 수난**: 당시 많은 작가가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도시인들의 내면 심리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농민들이 겪는 역사적 비극과 수난을 사실적으로 그려냄.
- **향토성**: 정겨운 시골의 인정과 향토색이 짙게 나타나면서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이 겪는 고통을 통해 비극적 현실을 보여 줌.

18 (가)는 ‘어떠하리’를 반복하며 상대방을 부드러운 어조로 회유하고 있고, (나)는 ‘죽어’를 반복하며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단호한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19 (가)의 화자는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으로, 정몽주에게 조선 왕조 건국에 협력할 것을 회유하고 있다. 따라서 (가)에서 ‘우리’는 이방원과 정몽주를 의미한다. (나)의 화자는 정몽주로, 새로운 왕조 건설에 반대하며 고려 왕조를 끝까지 지키려고 한다. 따라서 (나)에서 ‘임’은 고려 왕조를 의미한다.

02 진솔하게 표현하며 갈등 조정하기

소단원 한눈에 보기

138~139쪽

- 1 (1) ○ (2) ×
 2 (1) 조정 (2) 대화 (3) 원인
 3 (1) 나리 (2) 영훈 (3) 엄마
 4 (1) 객관적 (2) 양보 (3) 구체적
 5 (1) ○ (2) ×
 6 (1) 오해 (2) 이해 (3) 해결

활동 응용 문제

142~151쪽

- 1 ④ 2 ⑤ 3 진솔 4 ② 5 ① 6 ① 7 ②
 8 ⑤ 9 ⑤ 10 상호 협력적

- 1 엄마가 영훈에게 화가 난 것은 영훈이 공부가 아닌 쓸데없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경제적 형편에 대한 내용은 (가)에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③ 나리의 새 옷을 본 영훈은 엄마가 나리에게만 옷을 사준 것이라 여기고, 엄마가 자신과 나리를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영훈은 엄마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② 엄마는 영훈이 공부가 아닌 쓸데없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며, 영훈이 학업에 집중하길 바란다.

⑤ 영훈은 엄마가 동생과 자신을 차별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엄마는 영훈이 학업에 집중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 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 2 (나)에서 엄마는 영훈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영훈이 기대하는 바를 파악하며 영훈을 이해하게 된다. 즉 (나)에서 엄마가 영훈에게 좋은 성적을 요구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3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는 이에 대해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다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서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4 “넌 축구도 못하고 농구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뭐냐?”라는 말은 운동을 못하는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로,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표현이다. 이와 같은 표현은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 5 “네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된 거야.”라는 말은 상대에게 잘못을 돌리는 표현으로, 이와 같은 표현 대신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네가 하라는 대로 했으니 잘될 리가 없지.”라는 말 또한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므로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을 솔직한 감정 표현으로 고쳤으므로 적절하다.

③ 일반화하거나 과장하는 표현을, 자신이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표현으로 고쳤으므로 적절하다.

④ 비꼬거나 조롱하는 표현을,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으로 고쳤으므로 적절하다.

⑤ 비난과 공격의 표현을 쓰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으로 고쳤으므로 적절하다.

- 6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를 하면,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더 나아가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 7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겪을 수 있는 갈등 상황과 거리가 멀다.

- 8 준환은 반 친구들의 단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연습한 친구들을 첫 번째 줄에 세우고 싶어 하는 반면, 다미는 대화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작을 잘하는 친구들을 첫 번째 줄에 세우고 싶어 한다. 이는 반 친구들의 치어리딩 대회에서 첫 번째 줄에 어떤 학생을 세워야 할지와 관련해서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 9 준환과 다미는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준환은 대형을 바꾸어야 했던 상황을 다미에게 설명하면서 다음부터는 미리 말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미에게 무조건 양보를 하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다.

- 10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 기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을 활용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문해력 키우기

153쪽

- 1 경솔하다 2 대응하다 3 경계하다 4 조정하다 5 ○
 6 × 7 ○ 8 ○ 9 ㉠ 10 ㉡ 11 ㉢ 12 ㉣

확인 문제

155쪽

- 1 × 2 ○ 3 ○ 4 ㉠ 5 ㉡ 6 ㉢ 7 존중
 8 악화 9 객관적 10 구체적

발전 활동 「미안합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156~159쪽

- (1) ○ (2) 미안합니다 (3) 잘못, 처지 (4) 반성

내용 확인 문제

156~159쪽

- 1 ④ 2 ⑤ 3 ⑤ 4 행복한 결말

- 1 이 글은 수필로, 글쓴이가 일상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함축적 언어를 사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은 수필이 아니라 시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아버지’와 ‘경비원’이 서로 사과하는 모습을 본 후, 학생들에게 사과하지 않으려고 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나’는 이 글의 글쓴이로, 일상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깨달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③ 사과를 하지 않았던 ‘나’의 일화, 서로 사과를 했던 ‘아버지’와 ‘경비원’의 일화가 대비되며 “미안합니다.”라는 말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⑤ 이 글의 바탕이 된 일화는 글쓴이인 ‘나’가 직접 겪은 것으로, 이 경험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솔직하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수필의 개념과 특성

수필은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바탕으로 쓴 글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다. 수필은 형식이 자유롭고, 구성이나 표현에 제약이 없으며,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이 솔직하게 드러난다.

- 2 ‘나’는 영수가 다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구실을 만든다. 영수가 자신이 이미 다 잊어버렸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 3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아버지’와 ‘경비원’은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통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보이며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

②, ③, ④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와 ‘경비원’은 서로에게 사과를 함으로써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였다.

- 4 이 글의 ‘아버지’와 ‘경비원’은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통해 갈등 상황에서 상대와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였다. ‘나’는 이를 두고 두 사람이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행복한 결말’이었다고 표현하였다.

활동 응용 문제

160~161쪽

- 1 ① 2 ③ 3 자신의 행위에 대한 원인을 영수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4 ②

- 1 ‘아버지’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하는 것은 체면이 상하는 일이 아니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사과하려고 했던 생각을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결론짓고 그냥 잊어버린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나’이다.

③ 사과하려고 생각했던 것을 어리석게 여긴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나’이다.

④ 허리를 굽히고 사과하는 것을 채신없다고 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나’이다.

⑤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자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다고 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나’이다.

- 2 ‘아버지’와 ‘경비원’이 그랬던 것처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ㄱ)하고, 상대의 처지를 이해(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오답 풀이 ㄴ, ㄷ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나 상대의 잘못을 비난하는 태도는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 글의 두 번째 일화에서 ‘아버지’와 ‘경비원’은 이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솔직하게 미안함을 표시함으로써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다.

- 3 제시된 발화는 영수에 대한 ‘나’의 사과를 담고 있지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원인을 상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

- 4 “네 잘못이니 네가 먼저 사과해.”라는 말은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갈등을 악화시키고 갈등 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말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④ 자신의 감정과 입장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갈등을 조정하는 말로 적절하다.

③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갈등을 조정하는 말로 적절하다.

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갈등을 조정하는 말로 적절하다.

소단원 평가

162~165쪽

- 01 ⑤ 02 ① 03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다. 04 ③ 05 ⑤ 06 ⑤ 07 ④ 08 상대에게
잘못을 돌리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09 ⑤ 10 ⑤
11 ④ 12 자신의 감정과 기대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상대에게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기 13 ③ 14 ⑤
15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려는 태
도가 필요하다.

01 (나)에서는 그동안 영혼의 생각과 감정, 영혼이 기대하는 바를 파악하지 못했던 엄마가 영혼을 이해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영혼이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엄마와 화해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갈등은 상대와 생각, 감정, 기대 등이 서로 다를 때 발생하곤 한다. 영혼은 엄마가 나리와 자신을 차별하는 것 같아서, 엄마는 영혼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서 갈등하고 있다. 즉 영혼과 엄마는 서로 다른 생각, 감정, 기대를 갖고 있고, 서로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으며, 상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② 엄마가 영혼과 같은 경험이 있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인물들 각자의 마음의 상처 때문이 아니라, 서로 진솔하게 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④ 엄마와 영혼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리는 영혼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면서 영혼에게 엄마와 다시 대화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⑤ 엄마는 자신의 교육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최근 자존감이 낮아진 영혼의 마음을 이해하고 영혼이 좋아하는 일을 찾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03 영혼과 엄마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기대하는 바를 파악하여 갈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

04 영혼은 엄마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엄마가 자신보다 나리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며, 시험을 앞두고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꺾여 사소한 일에도 서운하게 느끼고 있다. 엄마는 영혼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옷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영혼이 엄마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5 [A]를 들은 엄마는 영혼의 마음과 입장을 이해하게 되어 [B]와 같이 말한다. 엄마는 시험을 앞둔 영혼이 될 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소한 일도 서운하게 느끼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엄마는 영혼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06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자신의 감정과 기대를 진솔하게 표현해야 하며 상대에게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이때 갈등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⑤는 갈등의 원인을 상대 탓으로 돌리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7 현수는 매번 약속에 늦는 미래에게 화가 났지만, 이를 표현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려면 자신의 감정과 기대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08 “네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된 거야.”는 갈등 상황에서 잘못을 상대에게 돌리는 표현으로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갈등을 더욱 악화시킨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 서로 양보하거나 의논할 가능성을 줄여 갈등의 조정을 어렵게 만든다.

평가 기준	확인
상대에게 잘못을 돌리는 표현이라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9 “네가 아무리 연습했어도 달리기는 내가 훨씬 빨라. 넌 그냥 응원이나 해.”라는 표현은 달리기 종목에 나가고 싶다는 헤지의 실력과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헤지의 의견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표현이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로 “너도 열심히 연습했구나! 대단해. 우리 둘 다 열심히 준비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 까?”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0 친구가 허락 없이 자신의 물건을 사용한 상황에서 “넌 왜 항상 허락 없이 내 물건에 손을 대고 그래?”라는 말은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표현으로,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의 잘못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표현을 경계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한다.

참고 자료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

-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피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 자신의 감정과 기대를 진솔하게 표현한다.
- 상대에게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한다.
-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상대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며 대화한다.

11 준환은 다미에게 대행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다. 또한 “이해해 줘서 고마워.”라고 하며 다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다미는 준환을 비난하지 않았고, 상황을 알지 못해서 당황스러웠던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며 다음부터는 미리 말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② 다미는 대형을 바꾼 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자신이 앞줄에 있는 친구들을 더 신경 써서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③ 준환은 다미를 탓하지 않았고, 대형을 바꾸게 된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다.

⑤ 준환은 안무보다 학급의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12 다미는 ㉠에서 대형이 바뀐 이유를 몰라서 당황스러웠던 자신의 감정과 기대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다음부터는 미리 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점을 준환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13 '나'는 영수에게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영수에게 "미안해."라고 말하지 않을 온갖 구실을 떠올리고 사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버지'가 '경비원'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본 후에, 영수에게 사과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나'는 '경비원'에게 허리를 굽혀 사과한 '아버지'에게 채신없어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② (가)에서 '나'는 말을 더듬는 증상이 있는 영수 대신 서훈이 책을 읽은 상황에, 학생들이 반항한다고 생각하여 학생들을 질책한다.

④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한 '나'를 위해 현관 가까이에 주차를 한 것이지만, 원칙을 어긴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비원'에게 사과를 한다.

⑤ '나'는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아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지만, '경비원'과의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한 '아버지'를 보고 학생들에게 사과할 것을 다짐한다.

14 '경비원'은 현관 앞에 차를 댄 '아버지'에게 화를 내다가 다리가 불편한 '나'를 보고 '아버지'에게 화를 냈던 것을 사과한다. 즉 자신이 '아버지'의 상황을 모르고 화를 낸 것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이 글에 영수와 서훈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나'는 '경비원'에게 허리 굽혀 사과하는 '아버지'에게 채신없어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④ '아버지'가 '경비원'에게 사과한 것은 현관 근처에 차를 대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차를 댄 것이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다. 딸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교훈을 얻기를 바라며 사과한 것은 아니다.

15 잘못된 일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를 하는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고 상대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대단원 평가

170~173쪽

01 ④ 02 꽤액 기차 소리였다. 03 ② 04 ① 05 ⑤
06 옹머리재 07 ⑤ 08 ⑤ 09 ④ 10 ③ 11 ④
12 ⑤ 13 ④ 14 ① 15 미안합니다. 16 ②

01 이 글은 일제 강점기에 징용으로 끌려가 한쪽 팔을 잃은 아버지와, 한국 전쟁으로 인해 한쪽 다리를 잃은 아들의 비극을 통해 두 세대가 겪은 가족사적 수난을 넘어서 우리 민족이 겪은 역사적 비극을 보여 주는 소설이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상황에 대해 서술하면서 전개되고 있다. 대화도 제시되어 있지만, 주로 대화를 통해 장면이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글은 2대에 걸친 비극을 통해 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보여 주고 있다. 이때 사투리와 비속어를 사용하여 등장인물의 성격을 보여 주고, 사실감과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 글에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어조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은 수필에 해당한다.

⑤ 전쟁에서 한쪽 다리를 잃고 돌아온 아들 진수를 보고, 만도는 화가 난 듯한 행동을 보인다. 그러나 이내 아들에게 미안함을 표현하고, 애정을 담아 위로를 함으로써 두 사람은 갈등을 해소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만도와 진수의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사회 변화 속에서 친구 세대가 겪는 세대 갈등이라고 볼 수는 없다.

02 만도는 정거장 대합실에 앉아서 진수를 기다리며 징용에 끌려갔던 과거를 떠올린다. 그때 꽤액 올리는 기차의 기적 소리를 계기로, 과거 회상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

03 한쪽 다리를 잃은 아들을 마주한 만도는 놀라고 기가 막힌 동시에 속상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느낀다. 하지만 진수가 다리를 잃은 것은 전쟁이라는 사회·문화적 상황 때문이고, 만도의 잘못은 아니므로 자신의 잘못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전사'는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생사를 모르게 된 사람들이 많았던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나는 단어이다. 이는 진수가 참전했던 한국 전쟁과 관련된 단어이다.

오답 풀이 ② '징용'은 일본이 전쟁을 위해 한국인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했던 일제 강점기와 관련된 단어이다.

③, ④ '북해도 탄광'과 '남양 군도'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와 관련된 단어이다.

⑤ '연합군'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상대한 세력을 가리키므로 일제 강점기와 관련된 단어이다.

05 이 작품에는 작품 밖에서 사건과 인물의 심리까지 파악하여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주로 사용되었다. <보기> 중 전지적 작가 시점에 알맞은 설명은 ㄱ과 ㄴ이다.

오답 풀이 ㄱ. 작품 속에서 주인공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1인칭 관찰 시점이다.

ㄴ. 작품 속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06 만도가 진수를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는 ‘용머리재’는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으로, 만도와 진수가 겪은 수난과 그 극복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자연물에 해당한다.

07 “이래 가지고 나 우째 살까 싶습니더.”라는 진수의 말을 통해 비관적, 절망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만도는 “몹스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기다.”라고 하며 진수와 달리 긍정적, 의지적 태도를 드러낸다. 또 만도가 앞으로 살아갈 일을 걱정하는 진수를 위로하자, 진수는 아버지의 말에 동조하며 수용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 글에서 진수가 주도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8 (나)의 ‘외나무다리’는 만도와 진수에게 닥친 시련이지만, 진수가 고등어를 들고 만도가 진수를 업고 건넌으로써 서로 힘을 합쳐 수난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는 장치에 해당한다.

09 영훈은 나리의 새 옷을 보고, 엄마가 자신보다 나리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또 부모님이 자신은 하찮게 여기고 나리만 자랑스러워한다고 여기고 있다. 영훈은 나리에게 이러한 속상한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 부모님과 의 갈등 원인이 나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10 <보기>는 영훈이 엄마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기>와 같이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오해가 발생하지 않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11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를 하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더 나아가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상대가 처한 상황에 선부르게 조언을 하는 것은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과 거리가 멀다.

12 갈등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은 상대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하는 방법과 거리가 멀다.

13 <보기>는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말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자신 때문에 친구가 화난 상황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앞세우고 대화를 거부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② 왜 그렇게 화를 내냐는 반문은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③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이며, 일반화하거나 과장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⑤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14 이 글은 ‘미안합니다.’라는 말에 담긴 위력과 가치를 담을 수필이다. 몸이 불편한 사람은 원칙을 어겨도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사과와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통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15 ‘아버지’와 ‘경비원’은 서로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통해 갈등을 조정했다. 이에 ‘나’는 자신이 영수에게 하지 못했던 말의 위력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따라서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미안합니다.”이다.

16 ‘나’에게 사과를 들은 영수는 사과를 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나’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수님께서 그 상황을 그냥 넘기셨어도 됐을 텐데”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에게 잘못을 돌리는 표현이므로 갈등을 조정하는 말로 적절하지 않다.

한 글음 디서술형 문제

174~175쪽

01 한쪽 다리가 없는 진수는 고등어를 들고, 한쪽 팔이 없는 만도는 진수를 업은 채 외나무다리를 건너고 있다.

02 만도는 진수의 처지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다. 진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판하며 아버지에게 미안해하고 있다.

03 만도와 진수 부자에게 닥친 시련이자, 우리 민족이 극복해야 할 시련을 상징한다.

04 오빠는 엄마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해야 한다.

05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06 상대를 비교하면서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07 현수는 자신의 감정과 기대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미래에게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01 한쪽 다리가 없는 진수는 지팡이를 짚고 외나무다리를 건너가기 힘들 것 같아서 다리 아래로 개천을 건너기 위해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리기 시작한다. 이에 만도는 자신이 진수를 업고, 팔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 대신 진수에게 고등어를 들게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만도와 진수는 서로 협력하여 외나무다리를 건너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만도는 한쪽 팔이 없고, 진수는 한쪽 다리가 없다는 신체적 특성을 포함하여 썼다.	☐
만도는 진수를 업고, 진수는 고등어를 들었다는 내용을 썼다.	☐

- 02** 외나무다리를 건너면서 만도는 아들 진수의 비극적인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으며, 진수는 아버지 만도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을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자신보다 서로를 더 생각하는 부자의 정이 드러난다.

평가 기준	확인
만도와 진수가 서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

- 03** 외나무다리는 장애를 가진 만도와 진수에게 닥친 시련이자, 우리 민족이 극복해야 할 민족사적 수난을 의미한다. 만도와 진수가 힘을 합쳐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모습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만도와 진수 부자에게 닥친 시련이라는 내용을 썼다.	☐
우리 민족이 극복해야 할 시련이라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 04** <보기>는 오빠와 엄마가 서로에 대한 감정·생각·기대가 서로 달라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다. 엄마는 그동안 오빠의 생각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한다면, 갈등 상황에서 오빠는 엄마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해야 한다.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서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확인
오빠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

- 05** <보기>는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며 갈등을 악화시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피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내용을 썼다.	☐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

- 06** <보기>의 발화에서는 모두 과제에서 맡은 부분을 해 오지 않은 친구를 비교하면서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친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표현을 경계하고 친구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보기>의 문제점으로 상대를 비교하면서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썼다.	☐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

- 07** <보기>에서 현수는 약속 시간에 늦어 화가 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 미래가 약속 시간을 잘 지켜 주었으면 하는 기대와, 늦게 된다면 미리 말을 해달라는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현수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활용한 대화 방법을 알맞게 썼다.	☐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

한 걸음 더 고득점 문제

176~179쪽

- 01** ⑤ **02** ③ **03** 만도는 일제 강점기에 징용되어 강제 노동을 하다가 한쪽 팔을 잃은 처지이다. 만도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 희망을 잃지 않으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다. **04** ④ **05** ①
06 ⑤ **07** ④ **08** ⑤ **09**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 **10** ④
11 ②

- 01** 이 글은 만도가 전쟁에서 돌아온 아들 진수를 만나는 현재와, 만도가 일제 강점기에 징용지에서 한쪽 팔을 잃었던 과거를 교차하여 서술하는 역순행적 구성이다. 진수의 이야기 속에 만도의 이야기가 담긴 액자식 구성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일제 강점기에 징용을 끌려가 다이너마이트 폭파 사고로 한쪽 팔을 잃게 된 아버지 만도의 비극과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수류탄 파편에 한쪽 다리를 잃게 된 아들 진수가 겪은 비극이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② '아부지', '우째 살까 싶습니다.' 등과 같은 경상도 방언의 사용은 인물의 성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토속적,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라>에서 만도는 진수를 위로하고 있고, 이러한 아버지의 위로에 진수의 걱정과 불안이 누그러지면서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④ 만도가 과거를 회상하는 <가>와 <나>는 대화보다는 서술자의 설명을 중심으로, 만도와 진수가 만난 현재 시점인 <라>, <마>, <바>는 등장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수난시대」의 역순행적 구성

「수난시대」에서는 '현재-과거-현재'의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만도와 진수의 수난을 유기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현재: 만도는 전쟁에서 돌아오는 진수를 만나기 위해 정거장 대합실로 마중을 나감.
- 과거: 만도는 일제 강점기에 징용에 끌려가 한쪽 팔을 잃음.
- 현재: 만도는 전쟁으로 인해 한쪽 다리를 잃고 돌아온 진수를 보고 분노하지만 함께 힘을 합쳐 외나무다리를 건넌다.

02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가의 의도를 해석한다면, 만도와 진수 부자의 비극은 우리 민족의 수난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만도와 진수가 시골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부자라는 점에서, ㉠은 비극적 역사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3 만도는 일제 강점기에 징용되어 강제 노동을 하다가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서 한쪽 팔을 잃게 되었고, 진수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수류탄 파편을 맞아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도는 불행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보여 주는 반면, 진수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 걱정하며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한쪽 팔을 잃은 만도의 처지를 알맞게 썼다.	☐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만도의 태도를 알맞게 썼다.	☐

04 만도가 진수를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웅머리재가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은 서술의 초점을 인간에서 자연으로 이동하여 수난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삶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에서 인간 세상과 자연의 대비, 자연의 아름다움은 드러나지 않는다.

05 <보기>는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중 외재적 관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외재적 관점은 작품 외부의 요소에 집중하여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작품 속 만도의 말이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은 내재적 관점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작가의 체험이나 경험, 감정 등 작가를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표현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③ 오늘날 독자에게 주는 깨달음을 분석하는 것은 독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는 효용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④, ⑤ 작품에 반영된 당시의 상황과 작품에 반영된 역사적 사실을 분석하는 것은 반영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수난시대」가 독자에게 주는 의미

- **창작 당시의 의미:** 일제 강점기의 한국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전달함.
- **현대 사회에서의 의미:** 세대 간의 갈등 등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서로 돕고 협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

06 이 대화에서 준환과 다미가 갈등하는 이유는 대화를 위한 태도를 잘 때 준환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맨 앞줄에 와야 한다는 생각을, 다미는 춤을 잘 추는 친구들이 맨 앞줄에 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 서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다.

07 준환은 대화를 통한 반 친구들의 화합이 결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미는 대화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미가 댄스부 주장이기 때문에 대형의 맨 앞줄에 서야 한다는 내용은 이 대화에 나타나지 않는다.

08 다른 사람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고 피한다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알 수 없다. 따라서 ⑤의 조언을 따른다면, 갈등을 조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09 <보기>의 대화에서 준환과 다미는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상대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의 감정과 기대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 방법은 갈등을 조정하는 데 효과적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평가 기준	확인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의 효과 두 가지를 알맞게 썼다.	☐
각각 한 문장으로 썼다.	☐

10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느낀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지닌 위력과 가치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 사과하는 말의 한계를 함께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나’가 영수에게 “미안해.”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일화와, 아버지가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통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 두 가지 일화를 제시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② ‘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기꺼이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한 ‘아버지’와 ‘경비원’의 행동으로부터 사과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고 있다.

③ ‘나’는 ‘아버지’의 일화를 제시하며, “미안해.”라는 말을 하지 않고 피할 구실을 떠올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다.

⑤ “미안합니다.”라는 말에 담긴 효력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깨달음을 넘어 인간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11 ‘아버지’와 ‘경비원’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며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다. 이는 서로의 오해로 인해 갈등이 악화될 수 있던 상황에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통해 평화로운 결말을 만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세상과 주고받는 말과 글

01 상황에 맞게 문법 요소 활용하기

소단원 한눈에 보기

184~185쪽

- 1 (1) ○ (2) × (3) ○
- 2 (1) 쥐가 고양이에게 쫓긴다. (2) 물고기가 어부에게 잡혔다.
- 3 (1) 리 (2) 능동사 (3) 객관적
- 4 (1) 인용 표현 (2) 형식 (3) 간접 인용
- 5 (1) '(이)라고' (2) 간접 인용 (3) 생생한
- 6 (1) × (2) ○ (3) ○

활동 응용 문제

190~199쪽

- 1 ⑤ 2 ③ 3 행인이 자전거에 치였다. 4 ④ 5 ⑤
- 6 형식 7 ⑤ 8 그가 어제 그녀에게 오늘 또 올 거냐고 물었다.
- 9 ③ 10 ⑤ 11 인용 12 ① 13 ③

- 1 (나)는 피동문으로 아이가 모기에 의해 행위를 당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아이가 제힘으로 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춘 표현은 능동문인 (가)이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주어는 '모기가', (나)의 주어는 '아이가'이므로 주어가 서로 다르다.
 ② (가)는 모기가 무슨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능동 표현, (나)는 아이가 모기에 의해 무슨 동작을 당한 것을 나타내는 피동 표현이다.
 ③ (가)는 모기가 무슨 행위를 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④ (가)와 (나)는 아이가 모기에 물린 상황을 각각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다.
- 2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능동사에 접사를 결합하거나 '-아/어지다'를 결합한다. 그 외에도 명사 뒤에 접사 '-되다'를 결합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 능동 표현의 주어는 부사어가 되며, 목적어는 서술어가 아닌 주어가 된다.
- 3 능동 표현인 '자전거가 행인을 치었다.'를 피동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능동 표현의 주어 '자전거가'를 피동 표현의 부사어 '자전거에'로 바꾼다. 그리고 능동 표현의 목적어 '행인'을 피동 표현의 주어 '행인이'로 바꾼다. 또 능동 표현의 서술어인 '치었다'에 접사 '-이-'를 결합하여 피동사 '치였다'로 만들면, '행인이 자전거에 치였다.'라는 피동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 4 방송 보도에서는 능동 표현 대신에 피동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이는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주체를 밝히지 않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동 표현을 활용하면 방송 보도 내용이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느껴지지 않고, 객관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다.
- 5 직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표현이다. 또한 인용한 문장에 큰따옴표를 넣어 표시하고, 뒤에 조사 '(이)라고'나 '하고'를 붙인다. 이러한 방법으로 직접 인용 표현을 만들면 '점심시간에 은아는 지오에게 "급식이 맛있다."라고 말했다.'가 된다.
- 6 직접 인용은 '동생은 나에게 "강아지는 귀여워."라고 말했다.'와 같이 다른 사람이 한 말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표현이고, 간접 인용은 '동생은 나에게 강아지는 귀엽다고 말했다.'와 같이 다른 사람이 한 말의 내용만 끌어 쓰고 형식은 유지하지 않는 표현이다.
- 7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 인용할 부분의 종결 표현인 '-어, -여요, -아' 등은 '-다, -냐, -자' 등과 같이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문장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려면 인용할 부분의 종결 표현인 '-어'를 '-다'로 바뀌서 '여행을 간 지수는 자기는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 8 제시된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큰따옴표를 삭제하고 인용된 문장의 '내일'을 인용하는 시점에 맞춰 '오늘'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의문문의 종결 표현인 '-니'를 '-냐'로, 조사 '라고'를 '고'로 바꿔야 한다. 따라서 제시된 문장의 올바른 간접 인용 표현은 '그가 어제 그녀에게 오늘 또 올 거냐고 물었다.'이다.
- 9 ㉠은 간접 인용 표현이고 ㉡은 직접 인용 표현이다. ㉡은 말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 인용 표현인 ㉠에 비해 정확한 표현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말하는 이의 어조가 담겨 있는 ㉡이 ㉠보다 생생한 느낌을 준다.
 ④ 말하는 사람의 표현을 그대로 전달하는 ㉡보다는 간접 인용 표현인 ㉠이 인용하는 내용을 매끄럽고 간결하게 전달한다.
 ⑤ 말하는 사람의 어조가 담겨 있는 ㉡보다 ㉠이 중립적인 느낌을 전달한다.
- 10 이 칼럼의 제목은 '버려지는 컵라면 국물'이라는 피동 표현을 활용하여, 버리는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를 '탐방객이 버리는 컵라면 국물'이라는 능동 표현을 활용하여 쓴다면 컵라면을 버리는 주체를 드러내어, 칼럼을 읽는 사람들이 그 주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 11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는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본래 그 말을 한 사람의 의도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 12 '오래된 건물이 철거됐다.'는 '(사람들이) 오래된 건물을 철거했다.'를 피동 표현으로 바꾼 문장이다. 이는 외국어의 영향을

받은 과도한 피동 표현이나 피동 표현을 겹쳐 사용하는 이중 피동 표현이 아니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③, ④, ⑤ 피동 표현인 '찢기다', '엎히다', '열리다', '보이다'에 '-어지다'를 다시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 13** 제시된 표현은 직접 인용을 통해 말하는 사람의 어조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직접 인용은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표현에 담긴 의미와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기에 적절하다.

문해력 키우기

201쪽

- 1 ○ 2 × 3 ○ 4 ○ 5 결합한 6 선사했다
7 왜곡하여 8 명확한 9 면적 10 교란 11 쟁점
12 인용

확인 문제

203쪽

- 1 × 2 ○ 3 ○ 4 주체 5 부사어 6 객관적
7 ㉠ 8 ㉡ 9 ㉢ 10 ㉣

발전 활동 「이중 피동의 문제」

활동 응용 문제

204~205쪽

- 1 ⑤ 2 ②

- 1** '믿기지'는 능동사 '믿다'에 피동 접사 '-기-'를 결합한 단어로, 이중 피동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 피동 표현인 '잊히다', '회복되다', '풀리다', '섞이다'에 '-어지다'를 다시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 2** 이 글에서는 이중 피동이 주는 어감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제시된 '쓰여진'을 분석한다면, '쓰인'이나 '써진'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애뜻하고 먹먹한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문학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단원 평가

206~209쪽

- 01 ⑤ 02 ① 03 ③ 04 ③ 05 그 소설이 많은 사람에게 읽혔다. 06 ③ 07 ⑤ 08 ③ 09 ⑤ 10 ⑤
11 ② 12 ⑤ 13 ③ 14 ② 15 ① 16 ⑤
17 ③ 18 ① 19 ㉠ 잊힌(잊어진), ㉡ 문헌(문어진), ㉢ 잊히지

- 01** 피동 표현은 '아이가 모기에 물리다'와 같이 주어(아이)가 다른 주체(모기)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말한다.

오답 풀이 ①, ③ 능동 표현의 개념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② 피동 표현은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밝히지 않는다. 따라서 내용을 주관적인 의견이 아닌 객관적인 정보로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④ 인용 표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 02** <보기>에서 피동 표현이 사용된 문장은 ㄱ과 ㄴ이다. ㄱ은 주어 '마을이'가 다른 주체 '눈'에 의해 덮여 있는 상황을, ㄴ은 주어 '문이'가 다른 주체 '바람'에 의해 닫힌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ㄷ, ㄹ.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제힘으로 하는 능동 표현이다.

- 03** '버렸다'는 기본형 '버리다'에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 '-었-'이 결합한 단어로, '-아/어지다'가 결합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담기다'는 능동사 '담다'에 접사 '-기-'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의 예시로 적절하다.

② '먹혔다'는 능동사 '먹다'에 접사 '-히-'와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 '-었-'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의 예시로 적절하다.

④ '풀어졌다'는 능동사 '풀다'에 '-아/어지다'와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 '-었-'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의 예시로 적절하다.

⑤ '발표되었다'는 명사 '발표'에 접사 '-되다'와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 '-었-'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의 예시로 적절하다.

- 04** '굶히다'는 '굶다'에 접사 '-히-'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굶히다'에 '-어지다'를 다시 결합한다면 피동 표현을 겹쳐 사용한 이중 피동 표현이 되므로,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는 과정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능동 표현의 목적이 '나름'이 피동 표현의 주어 '나는'으로 바뀌었다.

② 능동 표현의 주어 '고양이가'가 피동 표현의 부사어 '고양이에게'로 바뀌었다.

④ 능동 표현일 때는 행위의 초점이 '고양이'에 있었지만, 피동 표현으로 바꾸며 초점이 '나'로 바뀌었다.

- 05** <보기>의 문장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능동 표현의 주어인 '많은 사람들'을 피동 표현의 부사어인 '많은 사람들에게'로 바꾼다. 그리고 능동 표현의 목적어인 '그 소설을'을

피동 표현의 주어인 '그 소설이'로 바꾼다. 마지막으로 능동 표현의 서술어 '읽었다'에 접사 '-히-'를 결합해 '읽혔다'로 만들면, '그 소설이 많은 사람에게 읽혔다.'라는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06 ㉠은 능동 표현이 사용된 문장으로, 식탁을 닦지 않은 행위를 한 주체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반면에 피동 표현이 쓰인 ㉡은 식탁이 닦이지 않은 사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주체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게 된다.

07 <보기>의 방송 보도에서는 피동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밝히지 않게 되므로, 보도 내용이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보이게 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 보도에서는 수용자가 내용을 객관적인 정보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피동 표현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08 피동 표현은 '식탁이 안 닦여 있어요.'처럼 행위의 주체보다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거나, '날씨가 풀렸다.'처럼 행위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견을 신중하게 드러내는 경우에 활용하기 적절하다. 즉 피동 표현은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밝히지 않고자 할 때 사용하므로, 주체를 신중하게 밝히기 위해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9 문장을 직접 인용할 때는 인용하는 부분에 큰따옴표를 넣어 표시하고, 조사 '(이)라고'를 붙이거나 '하고'를 직접 인용하는 부분 뒤에 사용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문장을 간접 인용할 때는 큰따옴표 없이 인용하는 부분 뒤에 조사 '고'를 붙인다.

10 직접 인용 표현에서 '이곳'은 말한 사람인 태서에게 가까운 곳을 의미한다. 이를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현재 말을 하는 화자의 관점에서, 이미 언급된 장소를 다시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인 '그곳'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저곳'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제시된 인용문의 맥락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11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는, 화자가 인용하는 시점에 맞춰서 시간 표현을 바꿔야 한다. 형이 어제 "내일은 뭐해?"라고 물었으므로 이를 오늘의 시점에서 간접 인용하려면 '형이 어제 나에게 오늘은 뭐하냐고 물었다.'와 같이 고쳐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화자의 관점에 따라 인칭 대명사 '나'와 '네'를 '자기'와 '그'로, 지시 표현 '이것'을 '그것'으로, 상대에 대한 높임 표현 '저'를 '나로' 고쳤으므로 적절하다.

⑤ 화자가 인용하는 시점에 따라 시간 표현 '지금'을 '그때'로 고쳤으므로 적절하다.

12 간접 인용 표현은 인용하려는 말의 내용만 끌어 쓰고 형식은 유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용하는 말의 시제나 종결 표현, 높임 표현 등을 화자의 관점에 맞게 바꿔야 한다.

13 이 글의 ㉠과 ㉡에서는 피동 표현을 사용했다. 여기에는 행위의 주체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겁라면 국물을 버리는 사람들의 책임을 묻거나 그들을 비판하기보다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14 ㉠에서는 '봄철같이 꽃 피는 시기'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보기>의 인터뷰를 인용하였다. 이는 탐방객이 많이 방문하는 시기에 버려지는 라면 국물이 하루에 120리터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 인터뷰 내용을 글쓰기가 특정 기간을 언급하지 않고 버려지는 라면 국물의 양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한 것이다. 따라서 ㉠은 인용하는 말의 일부만 선택하여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왜곡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15 <보기>에 쓰인 피동 표현 중, ㉠, ㉡은 피동 표현이 한 번 사용된 적절한 표현이다. 반면에 ㉢과 ㉣은 각각 '놓이다'와 '불리다'에 '-어지다'를 다시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은 외국어의 영향을 받아 피동 표현을 불필요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6 <보기>에 따르면 타인의 글을 활용할 경우에는 원저자의 글과 아이디어를 인정하여 윤리적으로 인용해야 한다. 하지만 원저자의 글이라 할지라도 자기 글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 써서 인용할 수 있다. ⑤와 같은 표어를 따른다면 간접 인용 표현은 쓸 수 없고 직접 인용 표현만 쓸 수 있을 것이다.

17 이중 피동 표현인 '쓰여진'을 피동이 한 번 사용된 '쓰인'이나 '써진'으로 바뀌도, 단어의 본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잊혀진 계절', '물려진 진실'과 같이 이미 대중에게 익숙해진 표현은 이중 표현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다.

② '잊혀진'은 '잊다'에 피동 접사 '-히-'를 붙여 만든 피동사 '잊히다'에 '-어지다'를 다시 붙여 활용한 표현이다.

④ 1문단의 '국립 국어원에서는 이중 피동을 잘못된 어법으로 보고,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에서 국립 국어원이 피동을 중복하는 것을 잘못된 표현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에서는 '원기가 차츰 회복되어진다.'를 예로 들어, 이중 피동이 어떤 상태가 시작되거나 진행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는 '상황이 점차 정리되어진다.'도 이중 표현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18 ㉠은 피동사에 '-어지다'를 붙인 이중 피동 표현을 말한다. '달이 구름에 가려졌다.'의 '가려졌다'는 '가리다'라는 능동사에 '-어지다'를 결합한 '가려지다'를 활용한 것으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은 '잊혀진 계절'에 피동 표현이 한 번 사용된 것으로 '잊힌' 또는 '잊어진'이 될 수 있으며, ㉡은 '물려진 진실'에 피동 표현이 한 번 사용된 것으로 '물힌' 또는 '물어진'이 될 수 있다. 또한 '잊어지지'와 마찬가지로 '잊혀지지'에 피동이 한 번 사용된 표현은 '잊히지'가 된다.

02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 쓰기

소단원 한눈에 보기

212~213쪽

- 1 (1) 조정 (2) 주제 (3) 조직
- 2 (1) × (2) ○ (3) ○
- 3 내용 조직하기
- 4 (1) ○ (2) ○ (3) ×
- 5 (1) 태도 (2) 기대나 요구 (3) 배경지식
- 6 (1) 내용 (2) 맞춤법 (3) 구조

활동 응용 문제

216~229쪽

- | | | | | | | |
|------------|------|------|------|------|------|-----|
| 1 ⑤ | 2 ③ | 3 ④ | 4 ② | 5 ② | 6 독자 | 7 ⑤ |
| 8 독자의 배경지식 | 9 ⑤ | 10 ① | 11 ④ | 12 ⑤ | | |
| 13 ④ | 14 ⑤ | | | | | |

- 1 독자의 관심을 고려하여 글을 실을 매체를 선정하는 것은 글 쓰기 계획을 세우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자료를 수집할 때는 주제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내용’과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한 뒤,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글을 쓰기 위한 자료를 찾아야 한다.
- 2 글을 쓰기 위한 아이디어는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떠올릴 수 있다. 또한 도서관에 방문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정보를 얻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에 해당한다.
- 3 제시된 내용에서는 인쇄 매체는 동영상 실을 수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자료의 활용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 이는 글을 쓰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조정된 사항에 해당한다.
- 4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개요를 작성할 때는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필요한 내용이 빠지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한다. 문단과 문장의 길이는 글을 쓰는 과정이나 초고를 쓴 후 고쳐 쓰는 과정에서 조절할 수 있다.
- 5 제시된 글에서는 종묘의 가치를 몰라본 것은 아닌지 물으며 종묘 방문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글에 마지막 부분에 넣으려는 이유는 글을 읽는 학생들이 종묘에 방문하도록 권유하기 위해서이다.
- 6 고쳐쓰기란 ‘계획하기-내용 생성하기-내용 조직하기-표현하기’를 거쳐 초고를 완성한 이후, 자신이 쓴 글의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는 활동이다.
- 7 독자를 고려하여 글을 고쳐쓰기 위해서는 독자의 배경지식, 기대나 요구,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목에 글의 중심 내

용이 잘 드러나도록 하거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글의 내용 차원의 고쳐쓰기 방법일 뿐, 독자를 고려한 고쳐쓰기의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 8 글을 고쳐 쓸 때는 독자의 배경지식, 기대와 요구, 태도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풀어쓰거나,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에 설명을 추가한 것은 독자의 배경지식을 고려한 고쳐쓰기의 방법이다.
- 9 글의 조직 차원에서 고쳐 쓸 때는 글의 전체적인 구조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지,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문장에 쓰인 단어들 사이의 호응이 자연스러운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따라서 문단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그렇다면’으로 고친 것은 조직 차원의 고쳐쓰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표현 차원의 고쳐쓰기에 해당한다.

③ 내용 차원의 고쳐쓰기에 해당한다.

- 10 고쳐쓰기 점검 항목은 내용 차원, 조직 차원, 표현 차원으로 구분된다. 문단과 문장의 길이를 점검하는 것은 표현 차원의 점검 항목이며, 나머지는 내용 차원의 점검 항목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고쳐쓰기 전략

- 고쳐쓰기는 일회적인 과정이 아니며 여러 차례에 걸쳐 고쳐쓰기를 할수록 최종 원고의 질이 높아진다.
- 고쳐쓰기를 할 때는 글에 나타난 큰 문제부터 살피고, 점차 세부적인 문제를 살피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 고쳐쓰기를 할 때는 첨가, 삭제, 대체, 재배열의 방법을 사용한다.
- 고쳐쓰기를 할 때는 글쓴이의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초고를 완성한 후 자신의 글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가진 뒤 글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또한 타인에게 글을 보여 준 뒤 글의 문제를 점검받는 것도 효과적이다.

- 11 판소리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독자의 배경지식과 수준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글의 주제와 관련된 적절한 쓰기 계획이다.

②, ③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와 관련된 적절한 쓰기 계획이다.

⑤ 글을 쓰는 목적과 관련된 적절한 쓰기 계획이다.

- 12 글의 내용을 생성할 때는 수집한 자료를 선별하고 더 필요한 자료가 있을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글의 목적이나 주제에 맞지 않는 자료는 선별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수집한 자료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3 글의 주제와 목적은 글의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수집한 자료가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그 자료를 제외해야 한다. 수집한 자료의 내용에 따라 글의 주제와 목적을 조정하는 것은 글쓰기의 우선순위가 뒤바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14 함께 경기를 보며 응원하자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안이라기보다, 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용을 보충한 것에 해당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 쓰거나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문해력 키우기

231쪽

- 1 배열하다 2 면제되다 3 창건하다 4 견주다 5 ○
6 × 7 ○ 8 × 9 ㉠ 10 ㉡ 11 ㉢ 12 ㉣

확인 문제

233쪽

- 1 출처 2 배경지식 3 목적 4 ○ 5 × 6 ×
7 ㉠ 8 ㉡ 9 ㉢ 10 ㉣

발전 활동 「퇴고는 필수」

활동 응용 문제

234~235쪽

- 1 ③ 2 ④

- 1 퇴고는 쓴 글을 여러 번 생각하여 고치고 다듬는 과정이다. 이 글에서는 글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타인의 관점으로 내 글을 객관적으로 다시 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 주관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남기라고 한 것은 아니다. 또한 글의 목적에 따라서는 글쓴이의 주관적 의견이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주관적인 의견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한 퇴고 방법이 아니다.
- 2 청자를 고려하여 글을 고쳐 쓸 때, 가능한 문장을 길게 써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장을 길게 쓰는 것보다는 청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단원 평가

236~239쪽

- 01 ③ 02 ⑤ 03 ③ 04 ④ 05 [D] 06 이 글의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07 ③ 08 ②
09 ③ 10 ② 11 '유래'를 '유례'로 고쳐 쓴다. 12 ④
13 ⑤ 14 ⑤ 15 ④

- 01 (가)는 글을 쓰기 전의 계획하기 단계이다. 준서는 글의 목적, 독자, 주제, 글을 실을 매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글의 갈래를 고려하여 짜임을 구성하거나 내용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인 종묘를 소개하는 글'을 쓰겠다고 말하며 글을 쓰는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

② '우리 학교 학생들'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고 있다.

④ 독자가 종묘는 많이 들어 봤지만 '건축물로서 종묘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는 잘 모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글의 주제를 설정하고 있다.

⑤ 독자가 '우리 학교 신문'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글을 실을 매체를 선정하고 있다.

- 02 글에 쓸 내용을 생성할 때 (가)의 쓰기 계획을 고려한다면, 주제와 관련한 내용은 건축물로서 종묘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종묘 관람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방법은 이와 같은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03 자료를 수집할 때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글의 주제와 목적, 독자에 적합한 자료인지 고려하며 선별해야 한다. 또한 (가)에서는 글을 실을 매체를 학교 신문으로 설정했으므로, 인쇄 매체로서의 학교 신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표현 양식을 지닌 자료를 선별해야 한다. 하지만 정보의 일관성을 이유로 표현 양식이 동일한 자료들만 수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04 [B]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종묘를 극찬한 내용, [E]는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두 자료를 활용하면 종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축물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오답 풀이 [A] 종묘의 건축적 특징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C] 현재 종묘 정전의 모습을 갖추게 된 이유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D] (가)에서 설정한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해야 한다.

- 05 (가)에서 준서는 건축물로서 종묘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주제로 글을 쓰기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4대 궁궐과 종묘, 조선 왕릉의 관람객 수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는 [D]의 내용은 주제와 무관하므로 글에 활용할 수 없다.

- 06 ㉠의 '조선 시대 사직단이 지닌 중요성'은 이 글의 주제인 '건축물로서 종묘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와 무관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직단이 종묘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 기

능은 건축물로서의 종묘를 소개할 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07 종묘의 여러 건물 중 정전에 대해 소개하기에 앞서, 종묘를 구성하는 건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한다면 글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08 '조선 시대의 사당, 종묘'라는 제목을 '조선의 영혼이 깃든 고요하고 장엄한 공간, 종묘'로 바꾸면, '건축물로서의 종묘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라는 글의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게 된다.

09 ㉠에서 질문을 던진 것은,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표현하여 독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이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에 관한 답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글을 쓰며 생긴 궁금증에 대한 답을 독자들에게서 얻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단어인 '신주'의 옆에 그 뜻을 추가하였다.

② '처음' 부분에 종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축물이라는 점을 언급하여, 종묘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였다.

④ '동서'와 '남북'보다는 '가로'와 '세로'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독자를 고려하여 이와 같이 수정하였다.

⑤ 정전의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아름다운 종묘 정전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10 ㉢는 건축가 프랭크 게리의 말을 간접 인용한 반면, <보기>에서는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하였다. 인물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 독자의 흥미를 끌고 내용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효과를 고려하여 고쳐 쓸 수 있다.

11 '유래'는 '사물이나 일이 생겨남. 또는 그 사물이나 일이 생겨난 바.'라는 뜻이다. (다)의 두 번째 문장에는 문맥상 '유래'가 아니라, '갈거나 비슷한 예'라는 뜻을 가진 '유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2 문단과 문단 사이의 연결을 고려하면, (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그렇다면'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앞 문단인 (다)에서 정전의 웅장한 규모와 건축적인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이어지는 (라)에서도 정전의 길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독자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고쳐 쓴 내용에 해당한다.

⑤ 글에 쓰인 정보의 출처와 관련하여 고쳐 쓴 내용에 해당한다.

13 비유나 예시, 피동, 인용과 같은 표현을 그 표현 효과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면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을 최대한 배제하였는지는 점검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14 글을 읽는 사람의 시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퇴고를 할 때 가까운 사람에게 글을 보여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타인의 시선을 빌려 조언을 받으면 글의 오류를 발견하기가 수월해진다. 퇴고 과정에서 첫 독자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주관적 의견을 담은 글일지라도 자신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15 발표를 통해 발표자의 전문성을 부각할 수 있으나, 발표는 청중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어려운 용어는 청중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서 제시해야 한다.

대단원 평가

244~247쪽

01 ① 02 ④ 03 ④ 04 ⑤ 05 ④

06 <보기>의 문장이 어색한 것은 외국어의 영향을 받아 피동 표현을 불필요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이번 화재 피해를 극복했다.'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07 ④

08 ③ 09 ② 10 말하는 사람의 어조가 반영되지 않고 종결 어미도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을 간결하고 매끄럽게 전달할 수 있다.

11 ④ 12 글의 주제, 글의 목적, (예상) 독자, 글을 실을 매체

13 ④ 14 ⑤ 15 ④ 16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쳐 쓴 것이다. 17 ④

01 '술래가 그를 잡았다.'라는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그가 술래에게 잡혔다.'가 된다. '술래가'가 '술래에게'가 되는 것처럼 능동 표현의 주어는 피동 표현의 부사어가 된다.

오답 풀이 ②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목적어 '그를'이 주어 '그가'가 된다.

③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동작이나 행위의 초점이 '술래'에서 '그'로 달라진다.

④ 동사 '잡다'에 접사 '-히-'를 결합하여 피동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⑤ 주어 '술래가'가 '그를 잡는 행위'를 제함으로 하는 것을 나타낸 능동 표현이다.

참고 자료

피동 표현의 실현 방법

- 1단계: 능동 표현의 주어에 '에게, 한테, 에 의해서' 등을 결합하여 피동 표현의 부사어로 만든다.
- 2단계: 능동 표현의 목적어를 피동 표현의 주어로 만든다.
- 3단계: 능동 표현의 서술어인 능동사를 피동 표현의 서술어인 피동사로 바꾼다.

- 02 <보기>는 동사에 ‘-어지다’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피동 표현은 ④의 ‘태풍에 의해 전기가 끊어졌다.’이다. ‘끊어졌다’는 ‘-어지다’가 붙은 피동 표현 ‘끊어지다’에 과거를 나타내는 접사 ‘-었-’이 결합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업다’에 접사 ‘-히-’를 붙여 만든 피동사가 사용되었다.
 ② ‘뒹다’에 접사 ‘-이-’를 붙여 만든 피동사가 사용되었다.
 ③ ‘물다’에 접사 ‘-리-’를 붙여 만든 피동사가 사용되었다.
 ⑤ 명사 ‘시행’에 ‘-되다’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 03 명사에 ‘-되다’를 붙이면 ‘예약되다, 수정되다, 변경되다, 지정되다’와 같은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안되다’는 명사에 ‘-되다’를 결합한 형태가 아니라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를 뜻하는 동사이다.

- 04 능동 표현인 ㉠에 비해 피동 표현인 ㉡이 듣는 사람에게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은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고 식탁이 안 닦인 사실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③ ㉠은 높임을 나타내는 접사 ‘-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은 그렇지 않다. 이는 문장의 주어가 달라서 발생한 차이일 뿐, 모두 높임 표현을 적절히 사용한 것이다.

- 05 ‘뒤덮었다’는 ‘덮다’라는 동사의 앞에 접사 ‘뒤-’를, 뒤에 접사 ‘-이-’를 붙여 만든 표현이다. 따라서 피동 표현을 겹쳐 사용하는 이중 피동 표현이 쓰인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찢겨지는’은 ‘찢다’에 접사 ‘-기-’와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② ‘잊혀지지는’은 ‘잊다’에 접사 ‘-히-’와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③ ‘모여지면’은 ‘모으다’에 접사 ‘-이-’와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⑤ ‘열려지면’은 ‘열다’에 접사 ‘-리-’와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 06 <보기>의 문장은 외국어의 영향을 받아 피동 표현을 불필요하게 사용한 예이다. ‘극복’은 ‘극복하다’가 자연스러운 말인데, <보기>에서는 피동 표현인 ‘극복되다’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문장은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이번 화재 피해를 극복했다.’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피동 표현을 불필요하게 사용해서 문장이 어색하다는 내용을 썼다.	☐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이번 화재 피해를 극복했다.’로 알맞게 고쳐 썼다.	☐

- 07 직접 인용 표현에서는 인용하는 문장 뒤에 조사 ‘(이)라고’를 붙일 수 있으며, ‘그는 “비키세요.” 하고 외쳤다.’와 같이 ‘하고’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 08 간접 인용 표현에서 큰따옴표 없이 인용하는 부분 뒤에 조사 ‘고’를 붙인 ③은 인용 표현이 바르게 사용된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빨리 가자.”와 같이 문장을 직접 인용할 때는 뒤에 조사 ‘라고’를 붙이거나 ‘하고’를 사용해야 한다.

② ‘잘 지냈냐’와 같이 간접 인용을 할 때는 뒤에 조사 ‘고’를 붙여야 한다.

④ 직접 인용 표현 뒤에 사용하는 ‘하고’는 조사가 아니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⑤ 간접 인용 표현이므로 ‘하고’가 아니라 조사 ‘고’를 붙여야 한다.

- 09 나.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서 대명사와 높임 표현, 종결 표현을 적절히 바꾸었다.

ㄷ. ‘조금 전에’ ‘지금’이라고 말한 표현을 간접 인용할 때, 인용하는 시점에 맞춰서 ‘그때’라고 적절하게 표현했다. 또한 종결 표현 ‘-어’를 ‘-다’로 적절히 바꾸어 표현했다.

오답 풀이 ㄱ. “내 말 들어요?”를 간접 인용하려면 대명사 ‘내’를 ‘자기’와 같이 고쳐야 한다.

ㄴ. 인용하는 시점에 맞춰 ‘내일’을 ‘오늘’로 적절히 바꿨다. 하지만 간접 인용 표현에서는 조사 ‘라고’가 아니라 ‘고’를 사용해야 한다.

- 10 직접 인용 표현인 ㉠을 간접 인용 표현인 ㉡으로 바꾸면 말하는 사람의 어조가 반영되지 않고, 종결 어미도 바뀐다. 따라서 내용을 매끄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간접 인용 표현의 효과를 적절하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 11 <보기 1>의 밑줄 친 문장에는 피동 표현이 사용되어 행위의 주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피동 표현을 사용한 문장에는 행위의 주체를 비난하려는 의도보다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태도가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① <보기 1>의 밑줄 친 문장은 말의 내용만 끌어 쓰고 형식은 유지하지 않는 간접 인용 표현이다.

②, ⑤ <보기 1>의 밑줄 친 문장은 <보기 2>에서 ‘봄철같이 꽃 피는 시기에는’, ‘탐방객이 너무 많이 와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인용한 문장이다. 이처럼 인용하려는 문장의 일부를 삭제할 경우 원래 말의 의도가 왜곡될 수 있다.

③ <보기 1>의 밑줄 친 문장에는 해당 문장을 어디서 인용했는지 출처가 제시되지 않았다.

- 12 준서는 글쓰기를 계획하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인 종묘를 소개하는 글’을 쓰겠다는 글의 목적을 정했으며, ‘우리 학교 학생들’을 독자로 정하였다. 그리고 ‘건축물로서 종묘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글의 주제로 정하고, ‘우리 학교 신문’이라는 매체에 글을 실기로 계획하였다. 따라서 (가)에서 준서가 글쓰기를 계획하면서 정한 요소 네 가지는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글의 주제, 글을 쓸 매체이다.

- 13 [D]는 주요 궁궐과 종묘, 조선 왕릉을 찾은 관람객의 수에 관한 내용으로, (가)에서 정한 주제인 ‘건축물로서 종묘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와는 관련이 없다.

한 걸음 더 서술형 문제

- 14 '끝' 부분에서는 앞서 설명한 종묘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며 글을 끝내야 한다. '끝'에서 종묘 외에 가치 있는 다른 건축물들을 제시하는 것은 글의 주제와 목적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처음' 부분에는 뒤에 이어질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독자들의 흥미를 끄는 내용인 '종묘의 기본적인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가운데 1'은 이 글의 주제와 목적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종묘의 여러 건물 중 정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할 것이므로, '가운데 4'를 '가운데 1'로 옮겨 종묘를 구성하는 건물의 종류를 미리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 15 (다)에서는 정전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라)의 시작 부분에서는 앞서 설명한 정전의 길이가 101미터라는 거대한 길이가 된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다)와 (라)의 문단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그렇다면'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내용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고쳐 쓸 방법으로 적절하다.

② 독자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풀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③ '유래'는 '사물이나 일이 생겨남. 또는 그 사물이나 일이 생겨남 바.'를 의미하는 단어이므로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유래'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⑤ '유일무이'는 '오직 하나뿐이고 둘도 없음.'을 의미하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6 <보기>의 '동서'와 '남북'을 ㉠에서 '가로'와 '세로'로 고친 것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자 했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확인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 17 <보기>는 종묘를 관람할 때 필요한 정보이다. <보기>를 이 글에 덧붙이는 것은 독자가 궁금해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독자의 기대나 요구를 고려한 고쳐쓰기의 방법이다.

참고 자료

고쳐쓰기의 대표적인 방법

- **훑어 읽기**: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으며 고쳐 쓸 부분을 발견함. → 글쓴이 스스로 글을 점검하는 전략임.
- **돌려 읽기**: 모둠에서 서로의 글을 읽고 조언해 줌으로써 서로 도움을 얻음. → 다양한 독자의 시각에서 글을 점검하는 전략임.

01 ㉠ 나뭇가지가 강풍에 꺾였다. ㉡ 나뭇가지가 강풍에 꺾어졌다.

02 교실 유리창이 깨졌어요. 고친 표현은 피동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행위의 주체를 밝히지 않는 효과가 있다.

03 전학을 간 친구가 자기는 아직 그곳이 낯설다고 말했다.

04 ㉢은 ㉠의 일부만 선택하여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왜곡하여 인용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05 그의 은퇴 소식이 도저히 믿기지(믿어지지) 않는다.

06 (나), 종묘를 구성하는 여러 건물에 대한 설명을 읽을 때 지도를 함께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07 ㉠ 독자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늘려 짓기'로 고쳐 쓴다.

㉡ 문단 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렇다면'으로 고쳐 쓴다.

08 독자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 01 ㉠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꺾었다'에 접사를 추가하여 피동 표현을 만들면, 접사 '-이-'가 결합된 '꺾였다(꺾이였다)'가 된다. 그리고 ㉡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피동 표현을 만들면 '-어지다'가 결합된 '꺾어졌다'가 된다.

평가 기준	확인
㉠의 방법으로 알맞게 피동문을 만들어 썼다.	☐
㉡의 방법으로 알맞게 피동문을 만들어 썼다.	☐

- 02 '윤재가 교실 유리창을 깬어요.'라는 문장을 행위의 초점을 바꾸어 고치면 '교실 유리창이 깨졌어요.'가 된다. 이와 같은 피동 표현을 활용하면 행위의 주체를 밝히지 않는 효과가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밑줄 친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알맞게 고쳐 썼다.	☐
고친 표현의 효과를 알맞게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

- 03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화자의 관점에 따라 인칭 대명사나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종결 표현 등을 고쳐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문장은 대명사 '나'를 '자기'로, 지시 표현 '이곳'을 '그곳'으로, 종결 표현 '-어'를 '-다'로 바꾸고 큰따옴표를 삭제한 뒤 조사 '고'를 붙여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인용하는 부분의 대명사, 지시 표현, 종결 표현을 알맞게 바꾸어 썼다.	☐
큰따옴표를 삭제하고 간접 인용의 조사로 알맞게 바꾸어 썼다.	☐

- 04 ㉢은 ㉠에서 '봄철같이 꽃 피는 시기에는', '탐방객이 너무 많이 와서'를 제외하고 문장의 일부만 선택하여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왜곡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는 본래 그 말을 한 사람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내용의 일부만을 뽑아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끼워 맞추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을 ㉡과 같이 인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알맞게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

- 05** 〈보기〉의 문장에서 ‘믿겨지지’는 ‘믿다’의 피동사인 ‘믿기다’에 ‘-어지다’가 결합하여 피동이 두 번 이어진 이중 피동 표현이다. 따라서 피동 표현을 만드는 접사 ‘-기-’나 ‘-어지다’ 중 하나를 제외하여 피동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접사 ‘-기-’와 ‘-어지다’ 중 하나를 제외하여 이중 피동 표현을 알맞게 고쳐 썼다.	☐

- 06** 종묘의 건물들과 위치를 나타낸 지도는 종묘의 각 건물을 설명한 (나)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기〉의 자료를 추가하면 독자가 글을 읽을 때 종묘를 구성하는 건물들과 그 위치를 이해하기에 수월해진다.

평가 기준	확인
〈보기〉를 추가하기에 적절한 문단인 (나)라는 내용을 썼다.	☐
〈보기〉를 추가했을 때의 효과를 알맞게 썼다.	☐

- 07** ㉠은 독자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려운 단어인 ‘증축’을 ‘늘려 짓기’로 고쳐 써야 한다. 또한 ㉡은 (다)와 (라) 사이의 연결을 고려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두 문단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그렇다면’으로 고쳐 써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의 조정 방안을 알맞게 썼다.	☐
㉡의 조정 방안을 알맞게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

- 08**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가치를 잘 모르고 과소평가하는 태도를 가진 독자들을 위해 종묘 정전의 건축 방식이 국가의 중요한 건축물 중에서는 세계적으로 유일하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을 추가했을 때 독자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

한 걸음 더 고득점 문제

250~253쪽

- 01 ② 02 ⑤ 03 ⑤ 04 ① 05 ③ 06 ④
07 ③ 08 ④ 09 ② 10 ⑤ 11 ④ 12 ③
13 ⑤ 14 ④

- 01** ‘버렸다’는 기본형 ‘버리다’에 과거를 나타내는 ‘-었-’이 결합한 단어이며, 피동 접사 ‘-리-’가 결합한 단어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⑤ 동사 ‘뚫다’, ‘흔들다’에 ‘-리-’를 결합하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③ 명사 ‘실현’에 ‘-되다’를 결합하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④ 동사 ‘뉘다’에 ‘-이-’를 결합하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 02** ‘쉬어진다’는 ‘쉬다’에 ‘-어지다’를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능동사 중에서는 피동 접사 ‘-이-, -히-, -리-, -기-’를 결합하여 피동사로 만들 수 없는 단어도 존재하는데, ‘쉬다’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쉬다’에 접사를 붙여도 자연스러운 피동 표현이 된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 자료

피동사가 없는 능동사

수여 동사	주다, 드리다, 바치다 등
수해 동사	얻다, 잃다, 찾다, 뚫다, 입다 등
경험 동사	알다, 배우다, 바라다, 느끼다, 참다 등
대칭 동사	뵈다, 만나다 등
‘-하다’ 동사	공부하다, 생각하다, 사랑하다 등

- 03** 나. 〈보기 1〉과 같이 피동 표현을 활용하면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견을 신중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르. 피동 표현을 활용하면 전달하는 내용에 대한 화자의 의견을 신중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느끼게 해 청자가 내용을 객관적인 정보로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오답 풀이 ㄱ. 피동 표현은 행위 주체를 밝히지 않아 행위 주체에 대한 책임이나 비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ㄷ. ‘전망합니다’, ‘뵙니다’와 같이 능동 표현을 사용했을 때, 말하는 이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보일 수 있다.

- 04** ㉠, ㉡, ㉢은 ‘닫다’, ‘걸다’, ‘담다’에 각각 접사 ‘-히-’, ‘-리-’, ‘-기-’를 결합한 후 ‘-어지다’를 다시 결합하여 만든 이중 피동 표현이다.

오답 풀이 ㉠ ‘보다’에 접사 ‘-이-’가 결합된 피동 표현으로, 이중 피동 표현이 아니다.

㉡ ‘가리다’에 ‘-어지다’를 결합하여 만든 피동 표현으로, 이중 피동 표현이 아니다.

- 05**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화자의 관점에 맞게 지시 표현, 시간 표현 등을 바꿔야 한다. 화자의 관점에서 바라

보았을 때, ㉠의 지시 표현 ‘이 책’은 ‘그 책’이 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오답 풀이 ① 직접 인용은 인용하는 말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유지하므로,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꾸면 말하는 이의 어조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② ㉠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화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지시 표현 ‘이것’이 ‘그것’으로 바뀐다. 그리고 말하는 시점과 인용하는 시점이 모두 ‘오늘’이므로 시간 표현은 바뀌지 않는다.

④ ㉠은 직접 인용 표현으로, 조사 ‘라고’ 대신에 ‘하고’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을 직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는 큰따옴표를 넣고 인용한 말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가져온다.

06 <보기>에 나타난 두 직접 인용 표현은 각기 다른 의미와 어조를 담고 있다. 하지만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었을 경우 동일한 문장이 된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의미와 어조를 담고 있더라도 간접 인용을 할 때 동일하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간접 인용은 말의 내용은 유지하고 형식을 바꾸는 방법이다.

② 직접 인용은 말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유지하는 방법이다.

③ 인용을 할 때는 인용하려는 말의 내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⑤ 표현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인용하는 말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유지하는 직접 인용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07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화자의 관점에 따라 지시 표현, 시간 표현, 높임 표현 등을 바꾸어야 한다. ‘지금까지 당신을 찾고 있었소.’의 ‘당신’은 화자의 관점에서 자신을 의미하므로, ‘나’로 바뀌어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08 직접 인용 표현의 ‘저’는 간접 인용 표현에서 ‘자기(㉠)’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어제의 관점에서 ‘내일’이라고 표현한 직접 인용 표현은 인용한 시점을 고려하여 ‘오늘(㉡)’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슬아의 입장에서 ‘이곳’은 인용을 하는 화자의 관점에서는 ‘그곳(㉢)’이 된다. 또 직접 인용 표현의 ‘어때?’는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어 쓸 때 ‘어떠냐고(㉣)’로 바뀌어 표현해야 한다.

09 ㄱ. 고쳐쓰기 과정에서는 독자의 관점에서 글을 객관적으로 읽으며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글이 쓰였는지 점검해야 한다.

ㄴ. 점검과 조정은 글쓰기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계획하기-내용 생성하기-내용 조직하기-표현하기-고쳐쓰기’로 이루어진 쓰기의 전 과정에서 글의 목적과 주제, 예상 독자, 매체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오답 풀이 ㄴ. 내용을 조직할 때 불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삭제해야 한다. 앞서 생성한 내용을 빠짐없이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 수집한 자료는 내용 중에서 일부만 인용한다고 해도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10 (라)는 예상 독자의 배경지식이나 수준에 맞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글의 주제에서 어긋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11 글의 ‘처음’에는 ‘종묘의 기본적인 정보 소개(㉠)’를 통해 독자의 흥미를 끌고, ‘앞으로 설명할 내용 안내(㉡)’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종묘가 건축된 과정(㉢)’, ‘종묘의 중심 건물인 정전의 건축적인 아름다움(㉣)’, ‘종묘 정전의 길이가 길어진 이유와 건축물로서 종묘의 가치(㉤)’를 제시하여 종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끝’에서는 ‘주요 내용의 요약 및 정리(㉥)’를 하고, ‘종묘에 방문할 것을 권유(㉦)’하며 글을 마무리하면 된다.

12 ㄱ. 내용 차원에서 믿을 수 있는 출처의 자료인지 점검하여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ㄴ. 문단 간의 연결을 고려하는 조직 차원에서 점검하여 (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그렇다면’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ㄴ. 글의 문맥을 고려하면 ‘같거나 비슷한 예’라는 뜻을 지닌 ‘유례’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ㄷ. 프랭크 게리의 말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간접 인용이 아니라 직접 인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13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늘려 짓기를 국가의 중요한 건축물에 활용한 것은 세계적으로 종묘 정전이 유일하다는 내용을 추가해 독자가 자부심을 느끼도록 할 수 있다.

14 앞으로 설명할 내용에 대해 질문을 제시하는 것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독자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점점·조정한 내용이 아니다.

4 매체로 보는 세상

01 매체 환경에서 바르게 읽기

소단원 한눈에 보기

258~259쪽

- 1 (1) 단일양식 (2) 복합적 (3) 맥락
- 2 (1) 요약적 (2) 풍부 (3) 이해하기 쉽게
- 3 (1) × (2) ○ (3) ○
- 4 (1) 간접적으로 (2) 해결할
- 5 (1) 명령 (2) 침해 (3) 상업적
- 6 (1) ○ (2) × (3) ○

제재

「선택에 숨겨진 비밀, 너지 효과」



스스로 확인하기

262~269쪽

- (1) ○ (2) × (3) 상업적 (4) × (5) ○ (6) ○ (7) × (8) 자유 의지
(9) 창의적

내용 확인 문제

262~269쪽

- 1 ④ 2 ⑤ 3 ① 4 자발적 지불 전략 5 ② 6 ②
7 ⑤ 8 ② 9 ⑤ 10 ⑤

- 1 너지 효과는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개입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너지 효과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판매 전략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2 너지 효과는 직접적인 강요나 명령 없이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마트 계산대 옆에 놓인 초콜릿이나 사탕 등에 이러한 전략이 숨어 있다. 빙판길을 조심하라는 안내문은 사람들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강요, 명령하는 방법이므로 너지 효과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맞춤형 영화 추천 시스템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에서 고객의 선호도와 시청 기록을 분석하여 개별 고객에게 적절한 영화를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너지 효과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사례로서, 구독자 수 증가와 고객 만족도 향상이라는 성과를 만들었다.

- 4 너지 효과를 활용한 자발적 지불 전략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고객이 직접 책정하여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원하는 만큼 가격을 지불하게 하여 가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 5 너지 효과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상업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오답 풀이 ① 소비자는 간접적인 개입에 영향을 받으므로 기업에서 너지 효과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너지 효과는 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④ 너지 효과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⑤ 너지 효과는 강제성이 없지만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은 이윤 증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6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소모되는 열량을 계단에 표시해 두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계단을 이용하게 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의 혼잡도가 낮아져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열량 소모량이 적힌 계단 때문에 엘리베이터의 이용자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7 농구 골대 모양의 투표 쓰레기통은 쓰레기통 위쪽의 판에 질문과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쓰레기를 자연스럽게 버릴 수 있도록 유도한 것으로, 길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 8 이 글에서는 투표 쓰레기통의 아이디어를 낸 학생의 인터뷰 동영상 활용함으로써 글의 내용을 더욱 생생하고 풍부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 9 너지 효과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은, 너지 효과는 무의식중에 특정 방향으로의 선택을 유도하여 사람들의 자유 의지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10 이 글은 너지 효과를 제재로 하여, 너지 효과의 개념과 특징, 활용 사례 등을 문자, 사진, 그래프, 동영상 등의 다양한 표현 양식을 사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가운데 3' 부분에서 너지 효과 활용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너지 효과를 활용한 사례인 맞춤형 영화 추천 시스템, 자발적 지불 전략, 열량 소모량이 적힌 계단, 투표 쓰레기통 등을 소개하고 있다.
 ② '끝' 부분에서 너지 효과를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③ 너지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을 모두 다루고 있다.
 ④ 너지 효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문자, 사진, 그래프, 동영상 등 다양한 표현 양식을 활용하고 있다.

- 1 ④ 2 ⑤ 3 ① 4 ③ 5 ② 6 ④ 7 신뢰성
8 ④ 9 ② 10 의도, 목적

- 1 글이 작성된 맥락은 글을 쓰게 된 배경 또는 조건을 의미하며, 글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성되었는가는 말하는 것이다. 표현 양식은 글이 작성된 맥락이 아니라, 예상 독자에게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 2 문자만으로 의미를 표현한 경우와 같이 하나의 표현 양식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단일양식이라고 한다. 반면 문자, 그림, 사진, 소리, 동영상, 그래프 등의 표현 양식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것을 복합양식이라고 한다.
- 3 복합양식은 문자, 그림, 사진, 소리, 동영상, 그래프 등의 표현 양식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것으로, 문자만으로 의미를 표현한 책은 복합양식이 아닌 단일양식의 예에 해당한다.
- 4 다양한 표현 양식이 어우러져 복합적으로 구성된 글은 글의 내용을 더욱 생생하고 풍부하게 전달하고,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또 표나 그래프 등을 활용하면 긴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어렵고 복잡한 내용도 쉽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복합양식으로 구성된 글이 글쓴이의 개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글쓴이의 개성은 단일양식의 글에서도 드러낼 수 있다.
- 5 글에 쓰인 표현 양식이 글의 내용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타당성을 평가할 때는 내용과 표현 양식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판단해야 하고, 내용이 표현 양식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오답 풀이 ㄴ. 최대한 다양한 종류의 표현 양식을 제시했는지 평가하기보다는 내용과 연관이 있는 표현 양식을 활용했는지 평가해야 한다.
ㄷ. 예상 독자가 흥미를 가질 만한 영상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영상으로만 구성했는지 평가하기보다는 내용과 표현 양식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 6 이 글에 활용된 동영상은 영상을 제작한 날짜와 제작 기관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또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작한 자료이고, 비교적 최근에 제작되었으므로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7 글에 쓰인 표현 양식은 비교적 최근에 제작된 것이어야 하고, 출처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어야 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제작한 자료여야 신뢰성 있는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 8 다양한 표현 양식을 활용하여 구성한 글은 내용을 더욱 풍부하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고,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글에 다양한 표현 양식을 활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 9 인터뷰 영상은 너지 효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내용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게 위해 사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너지 효과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활동했을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10 복합양식으로 구성된 글이나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기 위해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점검할 때는 표현 양식이 대상을 설명하기에 효과적인지, 글쓴이나 제작자의 의도, 목적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해야 한다. 또한 특정한 성, 지역, 연령 등에 대한 고정 관념이나 차별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고려해야 한다.

문해력 키우기

277쪽

- 1 ○ 2 × 3 ○ 4 ○ 5 참신하여 6 향상되었다
7 겨냥하고 8 과열되었다 9 공익적 10 자발적
11 복합적 12 상업적

확인 문제

279쪽

- 1 단일양식 2 복합적 3 비판적 4 출처 5 연관성
6 의도 7 차별 8 ㉠ 9 ㉡ 10 ㉢

발전 활동

- 1 ⑤ 2 ⑤ 3 ①

- 1 글이나 자료가 제작된 맥락은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하여 추론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건강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에게 달리기의 효과와 장점을 소개하기 위해 제작된 영상 자료이다. 올바른 달리기 방법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2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제작된 자료인지, 출처가 분명한지,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제작한 자료인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설명 내용을 시각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이 영상은 달리기의 효과 및 장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로 보완을 해야 한다. 따라서 달리기의 효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료나,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달리기를 하기 좋은 장소를 소개하는 것은 이 영상의 주제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인터뷰를 추가하면 달리기의 효과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보완 계획으로 적절하다.

③ 표를 활용하면 시청자가 달리기의 장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완 계획으로 적절하다.

④ 전문적인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므로 보완 계획으로 적절하다.

⑤ 심폐 기능의 향상은 영상에서 소개한 달리기의 효과와 장점에 해당하므로 보완 계획으로 적절하다.

소단원 평가

282~285쪽

- 01 ③ 02 ㉠은 사람들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명령하였다. 03 ③ 04 ④ 05 ③ 06 ① 07 ⑤
08 ④ 09 은수, 부정적(비판적) 10 ④ 11 ④ 12 ②
13 ⑤ 14 ④

01 이 글은 너지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너지 효과의 사례를 제시하며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돕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마케팅 전략의 종류를 소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⑤ (가)에서 너지 효과를 설명하고 있으나, 비유나 전문가의 발언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④ 글쓴이의 경험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02 (가)에 따르면 너지 효과는 직접적인 강요나 명령 없이 선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전략이다. 이와 달리 ㉠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강요하는 방식이다.

평가 기준	확인
너지 효과와 달리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명령한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3 (나)에서는 너지 효과를 활용하여 소변기 밖으로 나가는 소변의 양이 스티커를 붙이기 전과 비교했을 때 80퍼센트나 감소하였음을 제시하였고, (다)에서는 너지 효과를 활용하여 맞춤형 영화 추천 시스템을 도입한 후 실제 고객이 소비하는 영화 중 60퍼센트 이상이 이 시스템을 통해 추천 받은 것임을 제시

하였다. 이처럼 (나), (다)는 너지 효과의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신뢰성을 더하고 있다.

04 (다)는 너지 효과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내용의 흐름상 '그 결과' 다음에 그 성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보기>를 통해 멀티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기업의 구독자의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이 ㉡에 들어갈 수 있다.

05 이 글에 따르면 너지 효과는 기업의 이윤 창출과 같은 상업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켜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공익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너지 효과는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② (나)에 따르면, 너지 효과를 활용해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고,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너지 효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너지 효과를 활용해 계단 이용률을 높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⑤ (가)에서 너지 효과를 활용한 자발적 지불 전략으로 매출을 높이고, 홍보 효과를 얻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06 (나)에서 언급한 피아노 건반 모양의 계단을 실제 사진으로 보여 줌으로써 글의 내용을 더 사실감 있게 전달할 수 있다.

07 (다)는 문자와 동영상이라는 서로 다른 표현 양식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에서 글과 동영상은 동일한 내용이 중복된다고보다, 글과 동영상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글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낸다.

오답 풀이 ① (다)의 동영상은 공신력 있는 언론 기관에서 제작한 영상이다.

② 동영상의 출처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③ (다)의 글과 동영상은 모두 너지 효과를 활용한 공공 정책의 사례를 담고 있다.

④ 문자와 동영상이라는 표현 양식을 사용한 복합양식의 글이며, 이러한 표현 양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08 (가)에서 너지 효과는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너지 효과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부작용 사례가 급증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너지 효과는 사람들의 선택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③ 너지 효과는 상업적, 공익적 목적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다.

⑤ 너지 효과는 사람들의 선택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를 보장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09 재이, 영서, 시우, 소희는 너지 효과의 장점 및 효과에 대해 말하고 있는 반면, 은수는 너지 효과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 따라서 너지 효과에 대한 인식이 다른 한 사람은 은수이다. 즉 친구들 중에서 은수만 너지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고 있다.

10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마)를 통해 알 수 있다. 글쓴이는 주변에서 너지 효과가 적용된 사례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활용 방법을 탐구해 보고, 너지 효과를 현명하게 사용하여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자고 말하고 있다.

11 표현 양식이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단일양식의 글이나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은 복합양식으로 구성된 글과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기 위한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제시된 영상 자료는 이미지, 자막, 내레이션, 배경 음악 등의 다양한 표현 양식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양식 자료이다.

13 (다)는 달리기의 효과를 큰 자막으로 제시한 장면으로, 중요한 내용을 자막을 통해 강조하여 자료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다)에서 달리기의 장점과 단점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4 이 영상 자료는 달리기의 효과와 장점을 소개하기 위해 제작한 자료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소개하는 것은 이 영상의 주제와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복합양식으로 구성된 자료는 이미지, 자막, 내레이션, 배경 음악 등과 같은 표현 양식들이 모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연관성을 지닌다.

② 전문가의 인터뷰, 자막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영상을 만들었다.

③, ⑤ 달리기의 효과를 전달하는 자료이므로, 실제로 달리기의 효과를 본 사람의 인터뷰나 달리기를 통해 심폐 기능이 향상된 사례를 나타낸 그래프 등을 추가할 수 있다.

02 현실을 재현하는 매체 자료 분석하기

소단원 한눈에 보기

288~289쪽

1 (1) 의도 (2) 재현 (3) 선택

2 (1) 부분적으로 (2) 제작자

3 (1) × (2) ○ (3) ○

4 (1) 사회상 (2) 사회적 (3) 반영

5 (1) 은연중에 (2) 성 (3) 비판적

6 (1) ○ (2) ○ (3) ×

활동 응용 문제

292~303쪽

1 ①	2 ③	3 의도, 관점	4 ④	5 ③	6 ⑤
7 ④	8 ⑤	9 ②	10 친환경	11 ⑤	12 ③
13 ②	14 ③	15 ⑤	16 ③	17 ⑤	18 ⑤
19 ⑤					

1 지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게시 글에서 본 카페의 모습과 실제로 방문한 카페의 모습이 달라서 당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매체 자료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혹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 줄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매체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이지만, 제시된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③ 매체 자료에 활용된 사진을 누구나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자료를 사용할 때는 저작권에 유의해야 한다.

④ 매체 자료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현실을 다르게 재현할 수 있다. 최근에 제작된 자료가 현실을 더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⑤ 다수의 사람이 공유하는 정보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 매체 자료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보여 준다. 즉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매체 자료는 제작자가 자신의 관점과 의도에 따라 현실을 재현하여 다시 나타낸 것이다. 이때 매체 자료로 재현된 모습은 현실보다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

3 매체 자료에 재현된 현실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일부만 선택되어 나타났거나 특정 부분이 배제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매체 자료를 대할 때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현실이 다르게 재현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4 제시된 광고에서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낱알이 기재하지 않고, 제품의 특징을 드러내는 문구만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5 제시된 대화는 도서부 학생들이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는 내용이다. 학생들은 소설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문구를 넣어, 1학년 학생들이 소설의 내용을 궁금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다.

6 민재의 말을 통해 '0'의 주인공과 '1'의 주인공이 사생 대회에서 그림을 그리는 장면은 빠지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주인공이 앞뒤로 앉아 그림을 그리는 장면을 제외하고, '0'의 주인공이 장원 상을 받는 장면부터 시작해 극적인 느낌을 주기 위한 것이다.

7 도서부 학생들은 1학년 학생들이 소설의 내용을 궁금해할 수 있도록 소설의 주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바뀐 두 인물의 운명, 사생 대회의 장원에 얽힌 비밀이라는 문구를 영상의 끝부분에 넣기로 하였다.

8 매체 자료 중 광고를 대할 때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을 고려하여 선택되거나 배제된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이나 정보가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편향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기준으로 점검하며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9 이 광고에서는 미생물 기반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면 음식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미생물 분해 방식이 지닌 장점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음식물 처리기 사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부담이나 에너지 소비와 같은 부정적인 내용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음식물 처리기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의 예시, 친환경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한 지구의 이미지 등을 활용하고 있을 뿐, 음식물 처리에 필요한 요소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③ 이 광고는 미생물 기반의 음식물 처리기의 친환경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음식물 처리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부담은 다루고 있지 않다. 이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서 멀기 때문에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이 광고에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미생물 기반의 음식물 처리기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상반된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10 이 광고에서는 '지구를 지키는 똑똑한 음식물 처리기'라는 광고 문구와 웃는 표정으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는 지구의 이미지를 통해, 미생물 기반 음식물 처리기가 친환경적인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1 앞서 제시된 전문가의 말을 바탕으로 할 때, 미생물 기반 음식물 처리기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가 오히려 지구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된 광고에는 이러한 정보가 배제되어 있다. 이는 미생물 기반 음식물 처리기의 친환경적인 면을 강조하여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12 1970년대 우리나라 인구 정책 홍보물은 '돌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문구를 통해 자녀의 수를 줄이자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1950년대 이후 급격하게 높아진 출생률이 1970년대에 들어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자,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13 제시된 글에서 1950년대 초에는 자녀 출산을 권고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발표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와 같이 자녀를 여러 명 낳을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문구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⑤ 자녀의 수를 줄이자는 내용의 홍보물에 적합한 문구이다.

14 최근 우리나라 인구 정책 홍보물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자녀를 돌보느라 찢찢매며 힘들어하는 부부의 모습은 출산을 장려하는 이미지로 적절하지 않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 등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5 (가)에는 여학생은 화장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고정 관념이, (나)에는 남학생은 시사에 관심이 많고 토론을 잘한다는 고정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미숙한 사람,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6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 매체 자료에 반영되어 있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선택 또는 배제된 문구나 이미지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 매체 자료에 반영된 사회상은 무엇인지, 잘못된 고정 관념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지 분석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매체 자료도 열린 자세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7 이주 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익 광고에서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평범한 학생,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모습을 제시한다면, 이들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배제하였을 것이다.

18 제시된 목적으로 홍보물을 만들 때는 노인을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사회 초년생에게 조언을 해 주는 모습 등이 홍보물의 이미지로 적절하며, 젊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모습이나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모습 등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

19 매체 자료에는 특정한 성, 지역, 연령, 가정 배경, 인종, 장애 등에 대한 잘못된 고정 관념이 반영될 수 있다. 또 이러한 고정 관념을 의도적으로 깨뜨리거나 뒤집어서 반영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매체 자료의 고정 관념을 분석할 때는 이러한 두 측면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문해력 키우기

305쪽

- 1 정책 2 기반 3 연령 4 초점 5 × 6 ○
7 ○ 8 ○ 9 ㉠ 10 ㉡ 11 ㉢ 12 ㉣

확인 문제

307쪽

- 1 × 2 ○ 3 ○ 4 선택 5 전화, 스마트폰
6 인구 증가 7 집단 8 사회상 9 고정 관념
10 비판적

발전 활동

활동 응용 문제

308~309쪽

- 1 ① 2 ⑤ 3 ④

1 포스터를 제작하기 위해 계획을 세울 때는 포스터의 제작 목적, 주제, 독자, 포스터를 실을 매체 등을 고려해야 한다. 포스터 문구의 크기와 이미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포스터의 제작 계획을 세운 이후, 사용할 문구와 이미지를 모두 정한 뒤에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오답 풀이 ② 제작 계획을 세울 때 포스터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정할 수 있다.

③ 포스터를 실을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형식에 맞는 적절한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다.

④ 제작 계획을 세울 때는 독자를 분석해야 한다.

⑤ 자신이 그릴 포스터의 주제를 선정해야 의도와 관점을 잘 드러내는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다.

2 포스터를 제작할 때는 주제와 목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문구와 이미지를 선정하고,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내용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글자 크기나 색을 달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색상과 이미지를 사용하면 시선이 분산되어 강조의 효과를 줄 수 없으며,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전하고자 하는 정보만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3 제시된 점검 내용은 매체 자료에 반영된 잘못된 고정 관념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매체 자료에는 특정 성, 지역, 연령 등과 관련된 고정 관념이 은연중에 드러나므로 이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소단원 평가

310~313쪽

- 01 ② 02 ⑤ 03 ④ 04 ③ 05 ⑤ 06 문구의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한다. 07 ⑤ 08 미생물 기반 음식물 처리기의 친환경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09 ②, ④ 10 ③ 11 매체 자료에는 당시의 사회상이 반영된다. 12 ④ 13 ③

01 지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본 카페의 모습과 실제로 방문했을 때 카페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체 자료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제작자의 관점과 의도에 따라 재현된 현실을 보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2 매체 자료는 제작자의 관점과 의도에 따라 일부만 재현되거나 특정 요소가 배제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매체 자료가 항상 대상의 장점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03 이 광고에서는 선크림이 만든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 가족의 이미지, 자외선 차단을 강조하는 문구를 통해 선크림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04 이 광고는 선크림의 기능을 홍보하여 해당 제품을 많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광고에 사용된 문구를 고려했을 때, 선크림의 용량을 강조하기 위한 이미지보다는 태양 아래에서도 안전한 선크림의 기능 및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이미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05 도서부 학생들이 사생 대회에서 그림을 그리는 장면을 제외하려는 이유는 '0'의 주인공이 장원 상을 받는 장면부터 시작하여 극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이다. 영상 홍보물의 제작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의도는 이 대화에 나타나지 않는다.

06 도서부 학생들은 홍보물의 끝부분에 '한순간의 선택으로 바뀐 두 인물의 운명, 사생 대회의 장원에 얽힌 비밀'이라는 문구를 넣어 1학년 학생들이 소설의 내용을 궁금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이미지 없이 문구만 넣은 것은 영상을 시청할 때 문구의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07 (가)와 같은 광고는 제품의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제품의 장점은 강조되고, 단점은 의도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광고를 수용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공익적 목적의 매체 자료도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선택되거나 배제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고정 관념이 은연중에 드러나기도 하므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점검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② 전문 용어의 사용 빈도를 확인하는 것은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 유의할 점과 거리가 멀다.

③ 문구나 이미지에 담긴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인지 점검해야 한다.

④ 매체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요소가 무엇인지 추측해 보아야 하

며, 문구와 이미지가 함께 있는 자료에서 문구에 담긴 정보만으로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8 (나)에서 미생물 기반 음식물 처리기는 음식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 즉 이 광고에서는 <보기>와 같은 이미지와 문구를 통해 미생물 기반 음식물 처리기가 친환경적이며 지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09 (다)의 전문가는 미생물 기반 음식물 처리기가 지구 환경에 부담을 주기도 하며, 잔여물 처리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에서는 미생물 기반 음식물 처리기의 친환경적인 면만 드러내고 있으므로, (다)의 전문가는 광고에서 배제된,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할 수 있다.

10 (나)는 1970년대 인구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고 남아 선호 사상이 이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히며, 당시의 사회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의 홍보물에 반영된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은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에 따라 자녀를 적게 낳을 것을 권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11 (나)를 통해 (가)의 인구 정책 홍보물에는 1970년대 우리나라의 높아진 인구 증가율, 남아 선호 사상과 같은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매체 자료는 당대의 사회 모습이나 실태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을 파악해야 한다.

12 (가)는 남성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여성은 집안일과 육아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깨뜨리고 있다. (나)는 젊은 사람들만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이 공연을 보러 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에 전통적 가치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제시된 장면을 고려했을 때 (가)와 (나)를 특정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 영상으로 보긴 어렵다.

③ (가)와 (나)는 우리 사회의 고정 관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깨뜨리고 있다.

⑤ 매체 자료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주관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13 (나)는 어르신들이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광고로, 젊은 사람들만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고정 관념을 깨고 있다. 노년층과 대비하여 청년층의 문화생활이 저조함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남성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출근하는 아내를 배웅하는 듯한 이미지를 통해, 남성도 집안일과 육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② 노년층은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한다는 고정 관념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⑤ 여학생은 화장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우리 사회의 고정 관념이 나타나 있다.

대단원 평가

318~321쪽

- 01** ④ **02** ③ **03** ④ **04** 글의 중심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05** ② **06** ⑤
- 07** ⑤ **08** ① **09** 미생물 기반 음식물 처리기의 에너지 소비량 **10** ③ **11** ② **12** ②

01 이 글에서 너지 효과는 상업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된다고 하였다.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열량 소모량이 적힌 계단은 너지 효과가 공익적 목적으로 쓰인 대표적인 사례이다.

02 (나)에서는 글과 함께 그래프 자료를 활용하여 이 글을 복합양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복합양식으로 구성된 글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는 자료에 대한 해석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나)에서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구독자의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설명하며, 그래프에 담긴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플랫폼을 이용하는 구독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그래프이므로 연관성이 있다.

② 비교적 최근의 자료이며 출처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④ 객관적인 수치를 한눈에 보기 쉽게 시각화한 그래프이므로, 생생한 묘사나 흥미 유발과는 거리가 멀다.

⑤ 구독자 수 변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복잡한 통계 자료를 항목별로 분류한 것은 아니다.

03 너지 효과는 직접적인 강요나 명령 없이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전략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이다. <보기>에서도 이러한 너지 효과를 활용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이익이나 혜택을 주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너지 효과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④는 적절한 반응이 아니다.

04 (가)는 너지 효과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다루고 있으며, '너지 효과로 두 마리 토끼 잡기!'라는 소제목을 붙였다. (나)는 너지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이에 대한 반론을 다루고 있으며, '자유 보장일까, 자유 침해일까?'라는 소제목을 붙였다. 이와 같은 소제목은 글의 중심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중심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

05 <보기>는 (가)에서 설명하는 너지 효과의 적용 사례와 관련된 영상이다. 이는 글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자료이다. 그러나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전달하고 있다는 설명은 <보기>의 적절성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06 (나)에서는 너지 효과가 무의식중에 선택을 유도하여 사람들의 자유 의지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글쓴이는 이에 대한 반론으로 너지 효과는 특정 선택을 강제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를 보장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부드러운 개입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07 (가)에서는 선크림의 그늘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태양 앞에서도 당당'하다는 문구를 통해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는 선크림의 우수한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나)에서는 웃고 있는 지구의 이미지와 지구를 지킨다는 문구를 통해 음식물 처리기의 친환경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08 매체 자료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을 반영하여 재현한다. 특히 (가), (나)와 같은 광고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특정 문구나 이미지가 선택되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수용할 때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는지 점검하는 것보다, 제작자가 무엇을 선택하고 배제하였는지, 이에 따른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

09 <보기>는 미생물 기반 음식물 처리기의 에너지 소비가 지구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내용이며, (나)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배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품의 친환경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한 제작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가)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홍보물로,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남아 선호 사상이 만연했던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 (나), (다)는 청소년 금연 홍보물로, 남학생은 뉴스를 많이 보고 토론도 잘한다는 고정 관념이, 여학생은 화장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고정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즉 (가)~(다)를 통해 매체 자료에는 제작될 당시의 사회상이나 고정 관념이 반영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시대와 상황에 따라 홍보물의 주제는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

② (가)~(다)에서 주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각 홍보물의 이미지는 주제에 맞게 선택된 것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⑤ 제작자는 자신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현실을 재현하고 있다.

11 (가)는 1970년대 인구 정책 홍보물로, 인구 증가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음에도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자녀를 많이 낳는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 홍보물 제작의 의도는 남아자녀를 낳기 위해 여러 명의 아이를 낳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보기>는 한국인을 멸종 위기종으로 표현하여 낮은 출산율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당시의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으나 <보기>에 여아 선호 사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③, ④ (가)는 급격한 인구 증가를 우려하고 있고, (나)는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보기>의 사회상은 동일하지 않다.

⑤ (가)에서만 인구 과잉 문제가 심각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12 (나)와 (다)는 청소년의 금연을 강조하는 홍보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특징을 바탕으로 광고를 제작하였는데 여기에는 성별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고정 관념이 은연중에 나타나 있다. 하지만 (나)와 (다)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습이 각각 나타나고 있으므로 어느 한 성별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다.

한 걸음 더 서술형 문제

322~323쪽

01 단일양식의 글과 달리, 이 글은 다양한 표현 양식이 복합적으로 결합한 복합양식의 글이다. 이 글과 같이 동영상상을 글과 함께 제시하면 글의 내용을 더욱 생생하고 풍부하게 전달하고,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02 (가)와 (나)는 너지 효과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이고, (다)는 너지 효과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이다.

03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비교적 최근에 제작한 자료이고,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 썼다.

04 매체 자료 속 현실은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현실의 일부만 선택되거나 배제되는 등 실제 현실과 다르게 재현될 수 있다.

05 (가)에는 가족 구성원 중 남아자녀의 모습이 배제되어 있다. 이는 남아자녀를 낳기 위해 여러 명의 아이를 낳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06 (가)에는 여학생은 화장을 좋아한다는 고정 관념이 그대로 반영된 반면, (나)는 남성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여성은 집안일과 육아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깨뜨리고 있다. 매체 자료에는 고정 관념이 은연중에 드러나므로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 세심한 주의와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01 복합양식으로 구성된 글이란 문자, 사진, 영상, 그래프, 그림, 소리 등의 표현 양식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글에서도 너지 효과의 사례와 관련된 동영상상을 글과 함께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고,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이 글이 복합양식의 글이라는 내용을 썼다.	☐
이 글에 사용된 표현 양식이 동영상이라는 내용을 썼다.	☐
복합양식으로 구성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

- 02 (가)는 마트의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나)는 식당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너지 효과를 사용한 것으로 상업적 목적의 사례에 해당한다. 반면 (다)는 길거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너지 효과를 사용한 사례이다.

평가 기준	확인
(가)와 (나)가 너지 효과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임을 썼다.	☐
(다)가 너지 효과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임을 썼다.	☐

- 03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제작된 시기, 출처 표시 여부, 자료를 제작한 제작자나 기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다)의 동영상은 비교적 최근에 제작된 자료이며, 언론사에서 제작하였으므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자료가 비교적 최근에 제작되었다는 내용을 썼다.	☐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작했다는 내용을 썼다.	☐
출처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내용을 썼다.	☐

- 04 <보기>의 지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본 카페의 모습과 실제 카페의 모습이 달라서 당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매체 자료 속 현실은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실제 현실과 다르게 재현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실제 현실과 다르게 재현될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 05 (나)에서는 1970년대 당시 출생아 수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여기에는 남아 선호 사상도 한몫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상이 (가)에 반영되어 남자아이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 여러 명의 아이를 낳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이 반영되었다.

평가 기준	확인
가족 구성원에서 남자아이의 모습이 배제되었음을 썼다.	☐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 여러 명의 아이를 낳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이 반영된 것이라는 내용을 썼다.	☐

- 06 (가)는 여학생은 화장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표현한 홍보물로, 특정 성에 대한 고정 관념이 드러나 있다. (나)는 육아를 하는 남성, 출근을 하는 여성을 표현하여 남성은 직장에서 일하고, 여성은 집안일과 육아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깨뜨리고 있다. 매체 자료에는 고정 관념이 은연중에 드러나므로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평가 기준	확인
(가)에 여학생에 대한 고정 관념이 드러남을 썼다.	☐
(나)에 각 성별의 역할에 관한 고정 관념을 깨뜨려서 제시하고 있음을 썼다.	☐
매체 자료는 고정 관념을 은연중에 드러내므로,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함을 썼다.	☐

한 걸음 더 고득점 문제

324~327쪽

- 01 ④ 02 ⑤ 03 ② 04 ⑤ 05 너지 효과는 특정 선택을 강제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보장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부드러운 개입 방식이다.
- 06 ② 07 ③ 08 ③ 09 ④ 10 ③ 11 여러 학생들이 웃고 있는 모습과 함께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한 것으로 보아, 이주 배경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고정 관념을 깨뜨리기 위해 제작된 광고이다. 12 ②

- 01 (가)에서는 1999년의 암스테르담 국제공항에서 너지 효과를 활용한 구체적인 사례와 너지 효과를 사용해서 얻은 효과를 설명하고 있으며,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진을 활용해 글의 내용을 풍부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국제공항의 현재 모습을 나타낸 사진은 (가)의 내용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제시해야 한다는 ④의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1999년의 사례로 최근의 사례는 아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너지 효과의 활용 사례 및 효과를 잘 나타내고 있으므로, 독자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② 문자 외에도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③ 너지 효과가 적용된 실제 모습을 제시하여 글의 내용을 사실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⑤ 너지 효과가 적용된 결과를 수치로 표현하고 있지만 제시된 사진만으로는 그 수치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어렵다. 효과를 측정하는 기준이나 출처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글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 02 (다)에서는 열량 소모량이 적힌 계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계단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나타낸 그래프나 계단의 실제 사진, 계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인터뷰 등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신체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운동의 열량 소모량을 나타낸 표는 (다)의 내용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활용할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 03 (다)에 나타난 상황은 너지 효과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된 사례이며, 너지 효과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와 의미가 통하는 사자성어는 일거

양득(一舉兩得), 일석이조(一石二鳥)이며, 속담으로는 ‘마당 쓸고 돈 줍는다’,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가 있다. 이 표현들은 모두 한 가지 일로 여러 가지 이득을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일취월장(日就月將)은 하루하루 나아가고 달마다 성장한다는 의미로,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04 이 글은 너지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글로, 너지 효과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예로 들며 글을 전개하고 있다. 글쓴이는 너지 효과가 자유를 보장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부드러운 개입 방식이라고 하며, 너지 효과를 창의적으로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글쓴이는 너지 효과에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05 (다)에서 너지 효과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과 이에 대한 글쓴이의 반론을 모두 찾을 수 있다. 너지 효과가 무의식중에 선택을 유도하여 사람들의 자유 의지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 글쓴이는 너지 효과가 특정 선택을 강제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를 보장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너지 효과는 자유를 보장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유도한다는 내용으로, 이 글에 제시된 반론을 적절하게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

06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너지 효과는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개입하는 부드러운 방법이며 직접적인 강요나 명령, 경제적 유인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더 나은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참신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①, ③, ④, ⑤는 모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한 것으로, 너지 효과가 활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②는 벌금을 높게 부과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한 것으로, 여기에는 경제적 유인이 사용되었으며 다소 강제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07 〈보기〉는 매체 자료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보여 준다. ①, ②, ④, ⑤는 모두 〈보기〉와 같이 제작자가 자신의 의도와 관점에 맞게 현실의 일부분만 매체 자료로 재현한 사례인 반면, ③은 1인 가구가 늘어난 현재의 사회상을 광고에 반영한 것이다.

08 도서부 학생들은 영상의 끝부분에서 소설의 주제를 문구로 직접 드러내지 않고, ‘한순간의 선택으로 바뀐 두 인물의 운명, 사생 대회의 장원에 얹힌 비밀’이라는 문구를 넣어 학생들이 소설의 내용을 궁금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09 도서부 학생들은 ‘0’의 주인공과 ‘1’의 주인공을 소개하는 문구로 두 인물의 차이를 드러내려고 계획했다. 강당에서 마주친 ‘0’과 ‘1’의 주인공의 모습은 등장인물의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소설의 중심 내용을 간략하게 보여 주는 장면 중 하나이다.

10 〈보기〉에는 남학생은 뉴스를 많이 보고, 토론도 잘한다는 고정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매체 자료에는 고정 관념이 은연중에 드러나므로, 수용자는 매체 자료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매체 자료의 제작자에게는 매체 자료에 잘못된 고정 관념이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제작할 것을 조언할 수 있다.

11 〈보기〉의 공익 광고에서는 이주 배경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학생들이 밝게 웃고 있는 모습과 함께 ‘우리는 모두 우리!’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평범한 학생들과는 다를 것이며,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고정 관념을 깨뜨리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공익 광고의 ‘우리’라는 문구, 학생들이 웃고 있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썼다.	☐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고정 관념을 포함하여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

12 〈보기〉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포스터로 표현하고,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국가 차원의 탄소세 도입은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포스터에 사용할 문구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촉구할 수 있는 문구로 적절하다.

④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이미지로 적절하다.

⑤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의 이미지로 적절하다.



틀린 문제	나만의 정리



틀린 문제

나만의 정리